

윤석열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의 문화 협력 확대 강조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4. 27일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영화협회(MPA) 건물에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콘텐츠는 ‘자유’의 가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세계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라며, “자유를 공유하는 한미 양국의 문화 분야 협력이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양국 콘텐츠산업의 교류와 협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도록 공동 제작 확대 등 협력모델 창출, 인적 교류 및 투자 활성화, 저작권 보호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포럼 행사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기업 참석자들에게는 “양국 기업들이 힘을 합칠 때 세계인들이 지친 일상에서 위로와 희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이야기가 영상콘텐츠로 만들어지는 데 서로 협력하며 계속 도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참석한 이번 행사는 미국영화협회 회장단과 협회 회원인 6개의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은 전



▲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다.

례가 없는 규모로, 한국 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2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콘텐츠 수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과 상생 협력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던 행사였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K-콘텐츠의 매력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는 CJ그룹, SLL, 왓차, 에이스토리, 래몽래

인, 크리에이티브리더그룹에이트, 배우 이서진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서는 미국영화협회,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콘텐츠의 수출 및 투자 확대와 양국 콘텐츠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행사 말미에 대통령은 미국 영화협회장으로부터 영화 ‘블랙팬서’ 감독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전달받았다. 이에 대통령은 “영화 ‘블랙팬서’가 부산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했던 것처럼, 양국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광수기자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질병관리청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41, #42)가 추가로 발생(4.27.)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이었다.

위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역역대역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성지아기자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4.93% 하락. 14년 만 하락세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 3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 1천여 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 2천여 호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53.5%)’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차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 수혜자가 늘어난 전망이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65억 원이며,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으로 71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8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 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엠폭스(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

발생지역 방문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엠폭스 발생지역 확인하기
 - 손 씻기 철저 및 호흡기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이웃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과 접촉 삼가
 - 모든 사람이나 다수인 집단(회의, 모임, 공연, 행사 등) 참석 삼가
 - 엠폭스 의심환자 사용 물품(접수대,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환자 방문 시 환자를 돌보는 사람과 접촉 삼가
- 엠폭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전, 엠폭스 의심환자 방문 지역 방문객에게 알리기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 엠폭스 의심환자(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나 1339로 즉시 신고하고 방역당국 안내에 따라
 - 엠폭스 진단 결과에 따라 격리 조치 및 격리 시설로 이송될 수 있음
 - 발열, 발진, 손발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기
 - 발열, 발진, 손발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기
 - 의심환자의 쓰레기 및 환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의심환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환자를 돌보는 사람과 접촉 삼가
 - 예방접종을 포함한 기타 예방과 격리 조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케어 문화! 우리함께 만들어 가요!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2023. 5. 5.(금)~6.(토)
장소: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주최/주관 **Jindo** 진도군

+ 반려견 시범 및 대회

- Dog스포츠 시범 및 대회
- 반려견 10m달리기 대회 등

+ 관광객 참여·체험 행사

- 어린이 탐승형 로봇체험
- 어린이 페들보트 체험
- 어린이 퍼즐 맞추기 체험
- 어린이 낚시체험
- 어린이 비눗방울 체험
- 애견 미용 체험
- 애견 수영장 체험
- 부모와 함께하는 애견 산책
- 반려동물 교감·교육 체험
- 반려견 아로마 만들기 체험
- 진도개 공예품 체험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의무대상 확대,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 검증 모니터링 등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유영일)'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유영일 회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진만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진만 연구위원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고,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와 사업 분석,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

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그린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방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의무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확대·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 검증 모니터링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의정활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연구진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연구단체로 2022년 12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4.5개월이다.

조혜영/기자

대구시, 1,000조 '블루 골드' 물산업에 더 관심가져야

시의회 경환위, 28일(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점검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달 28일(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찾아 대구시의 물산업 현황을 점검했다.

대구시의 물산업은 한동안 대구시가 미래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육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2015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019년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등의 성과를 내며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 물산업클러스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2019년 대비 2022년 말 기준으로 사업체 수 64개에서 144개, 종사자 수 1,576명에서 3,726명, 매출액 5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 등으로 4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가능성을 증명했다. 특히, 수출액은 179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네 배 가량 증가하면서 해외 진출에

어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은 현장을 찾아,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로부터 물산업클러스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물융합연구센터를 비롯한 실증화 시설을 두루 둘러보며 대구시 물산업의 가능성을 살폈다.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잘 갖춰진 인프라 규모와 수준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대구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대구물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알려야 한다", "다른 시도와의 차별점을 강조해 대구시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태순 경제환경위원장은 "세계물산업 시장이 '블루 골드'라 불리며 시장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간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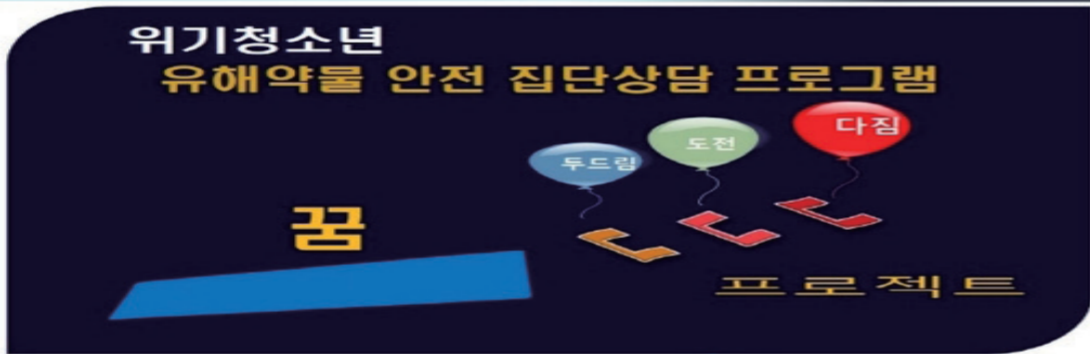
하는데, 대구시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최근 물산업클러스터에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의회도 더욱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환경부 주관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65만㎡의 부지에 2,950억 원을 들여, 물산업진흥시설 7만㎡, 실증화단지 10만㎡, 기업집적단지 48만㎡를 조성했다. 2019년 준공 이후 실증화시설은 94%, 집적단지는 64%가 입주 및 분양을 완료했고, 대구시는 물기업의 스케일업과 현장 실증화,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 청소년 마약 중독 근절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부터 마련 해야

윤영희 시의원, 조속히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효과 높일 것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해 시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영희 의원은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2023년 서울시가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마약사범은 4,640명이고, 전국 청소년 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0년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실질적인 마약 예방교육 제공을 위해 시급히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마약 예방 교육자료(PPT)를 제시하며 감사마다 교안이 달라 통일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요즘 학생 눈높이 맞지 않는 1990년대 스타일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종마약 사례와 실질적인 폐해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 예산 1억 2천만 원 중 교육자료 제작에는 2천만 원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표준화된 교재 제작과 통일적인 교육을 위한 교·강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

고, 교육 교재 제작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마약 예방교육 투입예산 대비 20~100배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3년 시민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교육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는 등 마약 예방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데이터산업 육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형식(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데이터 생산·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등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북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견고히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구(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소방서 행정기구 관할 구역 조정과 이에 따른 소방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거(도랑), 회무(사무), 입회(참관), 남골(봉안) 등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17개가 포함된 99개의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99개 경상북도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대해 매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발굴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전 확보 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치분권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합니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112)	문화부:내선(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113)	부동산부:내선(117)
	경제부:내선(114)	오피니언부:내선(118)
	스포츠부:내선(115)	지방부:내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정영양에 아름다움에 취하고, 봄 향기 가득 품은 산나물 향기에 취하고,
 명품자작나무술과 별이 쏟아지는 극제밤하늘 보광원에 취하고,
 제1회 영양 반려동물축제에 취하고, 문향의 얼이 살아 숨쉬는 문학에 취하며,

「불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주는 청정 힐링 축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최고의 청정의 고장, 문향의 고장인 '육지속의 섬' 영양군에서 “제18회 영양산나물 축제”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양읍내 시가지와 일월산 일원에서 영양군과 영양축제관광재단이 주최 및 주관해, 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영양산나물축제는 공식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콘텐츠로 구성돼, 축제의 추진 중점은 먼저, ▲영양 산나물을 활용한 먹거리의 다양화를 위해 산나물 바비큐, 산약초, 비건, 산나물요리교실 등 ‘먹거리촌’을 조성하고, 산나물 고로케, 산나물 피자 등 젊은 층인 ‘청년먹거리장터’ 운영하며, 축제장 곳곳에 게릴라성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 기존 산나물판매에서 벗어나 먹거리 위주의 축제로 전환해, ‘시골벽적’ ‘약자지컬’한 파티 분위기가 조성하도록 준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 축제를 통한 대외적인 청정이미지를 위해 친환경 실천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 영양군의 청정 산나물과 국제밤하늘보광원을 연계해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개인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쓰레기 분리 배출, 일회용품 사용 감소 등 친환경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제기된 지난 산나물축제시 지적사항은 축제장 안내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 교통혼잡, 안전사고

예방 필요, 방문객 수용태세 준비를 위한 간이매점, 음용수시설 등 미흡, 축제장 부스 운영시간 연장

이른마감으로 야간축제를 즐기기 어려운 방문객들의 발길 저해와 동행로에 대한 전반적 정리 부족으로

동행로 및 안내 가이드라인 확대가 요구됐고, 가족 단위 방문객 편의시설 부족이 문제가 됐다.

이를 위한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관람객 동선 고려 안내여건 개선, 주차시설의 활용도 개선, 방문객 이용편의를 위한 구급함 소매점 구성, 관광객에게 음용수·화장실 제공 하는 가게에 ‘축제참여 착한 식당’ 지정, 방문객이 4만여명인 점을 감안, 야간먹거리 강화/야간프로그램을 확충해 행사 시간 연장 검토 축제장주요 연결로 동행로를 가이드라인으로 연결, 접근성이 용이하게 구간별 간이쉼터를 배치했다.

이번 축제 Key point는 산촌문화 체험 축제화로 산나물 판매위주에서 탈피, 산촌문화 체험과 바비큐, 산약초, 비건 등 산나물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준비했다. 산채먹거리를 다양화해 축제장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마련, 추가적인 다양한 먹거리를 강화, 기존 시가지내의 업소를 통한 관람객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또, 축제장 안전강화를 위해 시가지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도로 위주의 시가지 축제 분위기를 조성

하고 축제장에 공용화장실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한 착한 식당을 선정,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도록 준비했으며, 축제장 부스 운영시간을 연장해 야간먹거리 강화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보완으로 야간의 축제장 방문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한 이번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역대 산나물축제와 달리 색다른 컨셉을 가미해 이미 벌써 시행도 하기전에 역대 축제보다 훨씬 높은 ‘대박성공축제’가 될 것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산나물체험장을 확대한 점이다. 특히나 개인 체험장을 육성, 상시 영양산나물 채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으로 산나물 이색 먹거리 문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산나물고로케, GREEN BAR을 운영하고, 산나물 모히또, 산나물 피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다. 또한 지난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받

은 고기굽터에 특별한 DJ부스를 별도 운영, 고기를 먹으면서 듣고 싶은 신청곡이나 자신의 사연을 알려주고 싶은 관광객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DJ부스를 운영, 옛 추억의 로망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미했다. 또 이벤트체험거리인 산나물 만들기, 몸으로 말해요, 산나물 OX 퀴즈쇼 등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는 퀴즈도 맞히고 상품도 타는 프로그램을 연출했고, SNS 활성화를 위해 산나물을 이용한 ‘산나물 포토존’을 설치, 산나물을 소비하는 고객층을 보다 폭 넓게 잡았다.

영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산나물 축제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행사장내 미적인 요소와 쉼터, 안내판 등 관광객의 편의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요소와 안전관리에 특히 집중을 하여 산나물축제에 오시는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참 영양산나물 축제에 잘왔다”는 소리가 저절로 흘러 나오는 관광객들의 오감만족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행사로 먼저 공식행사는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는 5월 13일(토), 영양읍 복개전 특설무대에서 관광객 문화 향유 기회 확대/영양밤하늘과 어울려진 무대기획을 통한 아름다운 영양밤하늘을 홍보 활성화를 도모, 야간트래킹 탄소 중립 캠페인인 ‘Light Out Trekking’은 5.6(토)~5.7(일), 영양군청→산나물 체험장→외씨버선길5번길→베이스캠프(선바위관광지)에서 약 100명 이내(백패킹인플루언서 20팀 이내)가 참가, 탄소중립 SNS 캠페인, 브랜드와 협업해 진행, 농가 대비비 수거, 환경 정화활동, 산나물채취 체험이 진행되며, 산나물 전국 가요제는 5. 11.(목) 19시~22시, 특설무대에서 본선이 열리고, 또,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는 5. 13.(토), 영양군 특설무대 앞에서 일월산 청정 산나물을 이용, 일월산 높이1,219m 의미를 하는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공연행사로 관내 지역공연은 5. 11.(목), 영양군 특설무대 앞에서 원뿔춤, 영양풍물단, 청소년 및 동호회 공연, 색소폰, 기타, 합창단 등 지역공연이 펼쳐지며, 기타 프로그램은 5. 12(금), 영양군 특설무대 앞에서 영양고유사투리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오락가락 가요제, 영양 현장경매 ‘진품명품’운영, 또 축제장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 버섯길 공연과 산나물DJ 부스를 운영, 산나물 파티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연행사가 열린다.

▲또, 4월~5월 중, 산촌먹거리 콘텐츠가 제작한다. 시골냄새 물씬나는 콘텐츠로 산골 야생먹방, 산골요리교실 등, 군 홍보/산나물판매 장려를 위해 인플루언서/영양관내 주민공을 선발, 시골예능 콘텐츠 제작과 산나물을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시식, 맛을 평가, 영양축제관광재단, SNS 게시판에 업로드시킬 계획이다.

▲체험행사로 산나물 테마거리의 축제기간내 축제장~영양전통시장에 산나물판매장터와 영양전통시장 연결길을 조명과 산나물화분으로 테마거리를 조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하며, 산촌 먹거리촌 운영도 축제기간, 영양전통시장/복개전에서 볼 기운 물씬나는 산골오지 먹거리를 스토리텔링해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축제의 핵심 방문층인 가족단위 즐길거리 충족을 위해 산나물 고기굽터에는 행사장에 비치된 다양하고 신선한 영양산나물과 고기를 같이 먹

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산나물 음식촌에서는 영양에서 나고 자란 산나물로 산나물 고로케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먹거리촌을 운영하고, 늘어가는 비건인들의 수요에 맞춰 산나물과 결합될 수 있는 영양산나물 비건요리들을 준비, 비건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비건먹거리를 운영한다.

또, 산나물 채취체험장은 축제기간, 체험장 사정에 따라 상시 실시되며, 일월산, 개별체험장 7~8개소

운영, 사전 접수로 신청 받은 관광객들이 산나물을 채취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산나물채취 체험 희망

관광객을 체험농가에 연결, 도시인들의 입맛에 생소한 산나물을 직접 채취 맛보며 산나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유발, 영양산나물을 홍보하고, 파라솔세트, 산나물레시피, 현수막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색쉼터는 축제기간, 읍내 시가지 일원 자투리 공간을 재구조화해 틈새 공간을 활용한 쉼터 조성 성과 산나물 다방, 피크닉 쉼터, 버려진 폐목재를 재활용해 새로운 쉼터 공간으로 조성한 업사이클 쉼터 등 테마쉼터를 운영하며, 이색 포토존 조성은 축제기간, 영양읍내 시가지 일원에서 산나물을 이용한 친자연적인 포토존을 조성하고, 포토존을 이용해 산나물축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음식디미방 체험은 축제기간 영양군청 앞에서 한글 최초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홍보 및 칠일주, 석이편, 빈자법등 시음-시식을 구성, 조선중기 반가음식 조리/음식 맛보기 체험행사가 열리며, 산나물 떡매치기 체험은 축제기간 영양전통시장 및 복개전에서 구매한 찰밥에 산나물을 첨가, 전문가 지시에

직접 떡매질을 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떡을 제조하는 체험으로 찰밥, 산나물 등 필수 재료는 별도 구매 후 체험 신청토록 했고, 산나물 서바이벌행사는 축제기간 읍내 시가지에서 전구역에 있는 관광객 대상, 1시간에 5명씩 선착순으로 산나물 관련 퀴즈 및 게임인 산나물 이름맞추기, 짚신받기(2인1조)등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정답자에게는 산나물 500g 또는 지역상품권 증정한다.

이와같이, 이번 제18회 영양산나물 축제의 기대효과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및 야간 프로그램에 따른 체류형 관광객 증가 ▲청정 지역 영양군을 홍보로 주산물 농가소득증대 도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농산물 신뢰구축 ▲기존의 산나물 판매축제를 탈피하고 산촌먹거리위주 축제로 청정영양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되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청정영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산물과 자연환경을 통해 청정 영양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키고, 청정영양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하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촌문화 체험, 국제 밤하늘 보광공원 등 체험관광축제와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주민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또, 관광객의 편의와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요소로 역대 축제에 ‘변화의 옷’을 입히고, 다양한 컨셉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영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오감만족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 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

“제18회

영양 YEONGYANG WILDEDIBLE GREENS FESTIVAL 산나물 축제”



산나물 판매장터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 세부 프로그램

구분	행사명	장소	주요내용
공식행사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	영양군 특설무대	영양의 밤하늘을 알리는 감성 프로그램
	야간트래킹 탄소중립 캠페인	영양군 일원	별을 보며 트래킹을 하는 야간프로그램
	산나물 가요제	영양군 특설무대	영양군의 산나물축제를 알리는 전국 가요제
공연행사	산나물 판매장터	영양군 일원	영양군청 앞 산나물장터 운영(70여동)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영양군 특설무대	일월산을 상징하는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관내 지역공연	영양군 특설무대	원뿔춤, 영양풍물단, 청소년 및 동호회 공연, 밴드 공연
	기타 프로그램	영양군 특설무대	오락가락 가요제, 현장 경매 '진품명품'
콘텐츠	영양고유사투리 경연대회	영양군 특설무대	사투리(우리고장의 말)의 고유한 맛과 지역문화 특성을 담은 사투리 경연대회를 개최
	산촌먹거리 예능	영양군 일원	영양 어르신들의 리얼한 산나물 먹방 예능 제작
체험행사	산나물 떡매치기	읍내 시가지	고기굽터, 산약초, 비건 존, 산나물 음식 존 구성
	산나물 그리퀴즈(무료)	읍내 시가지	찰밥에 신청자 원하는 산나물 재료를 가미 직접 떡매치기 체험을 해보는 유료이벤트
	멤부십 테스트	읍내 시가지	축제장내 관광객 대상, 볼록정 인물을 지극 제시하는 산나물 이름을 알리는 이벤트
	산나물 채취체험	마을별 체험장	단체별 매운맛을 맛보고 자신의 멤버십을 테스트하는 행사운영
	이색 쉼터	읍내 시가지	일월산, 정기 등 지역별 채취체험장 조성
	이색 포토존	읍내 시가지	산나물 다방, 피크닉 쉼터, 버려진 폐목재를 재활용해 새로운 쉼터 공간으로 조성
		친자연 이용 이색 포토존 구성/SNS 업로드 이벤트 운영(우수 포스팅 시상/인증상)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나물축제가 올해 경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만큼 관광객분들과 영양군민들이 안전을 기해 보다 더 좋은 먹거리와 불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계절의 여왕인 5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발걸음을 하는 이때, 봄꽃향기와 생기 넘치는 청정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맑은 공기를 맘껏 취할 수 있는 영양에서 펼쳐지는 축제에 연인, 친지, 가족, 친구와 손잡고 달려와 청정영양의 아름다움과, 봄 향기 가득 품은 산나물과, 명품자작나무술과 별이 쏟아지는 국제밤하늘 보광공원과 문향의 고장인 조지훈·이문열 문학관 탐방과 제1회 영양군 반려동물축제에 취하는 불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오감만족을 주는 힐링의 축제인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에 꼭 빠져보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광명시민, 도심에 직접 활기 불어넣는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5월부터 시작

2023년 광명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8개 단계 선정하고 사업 시작

광명시가 5월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거주지역의 개선점을 찾고 활성화를 기획하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 4월 18일 8개 팀을 최종 선정했고, 5월부터 보조금 지급 등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명시 주민공모사업' 4개 팀에 각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4개 팀에 500~700만 원씩 총 2천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광명시 주민공모사업 부문은 ▲반짝반짝 새터마을 사업 ▲광명시장 쪽길 개선사업 ▲도심 속 리틀 포레스트 ▲아이와 함께하는 가드닝·녹색교육사업이 진행된다. 반짝반짝 새터마을 사업은 새터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저층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방충망 보수, 단열재 설치, 화재감지기 설치 등 집 관리 지원, 적지 단 쓰레기 수거, 취약계층 주택 청소, 골목길 쓰레기 줍기 등을 시행한다. 광명시장 쪽길 개선사업은 광명

시장 초입부 길목에 벽화, 지중등을 설치해 광명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붐통과 장바구니를 활용한 환경캠페인도 병행한다. 도심 속 리틀 포레스트 사업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종 씨앗을 심어 키우는 농사 실습교육과 기린 작물로 요리하는 조리실습을 연계한다. 수료 후에는 모임을 꾸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1인가구의 관계 형성도 돕는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드닝·녹색교육 사업은 광명남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여러 가지 식물을 심으면서 재활용, 기후위기, 미래기술 등 녹색교육을 병행하고, 동네 청소와 가드닝 선진지 답사 등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도 도모한다.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부문은 ▲우리동네 바이올린 음악단 ▲꽃과 함께하는 골목길 가드닝 ▲무재개 엄마들이 간다 ▲아라마캔들 자격증반 과정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우리동네 바이올린 음악단 사업은 상대적으로 악기 교육 기회가 적은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10주에 걸쳐 바이올린 연주와 합주 방법을 가르치고 작은 음악회 등을 열어 주민에게도 힐링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꽃과 함께하는 골목길 가드닝 사업은 다육식물, 토피어리, 본재, 허브 등 다양한 가드닝 교육 후에 골

목에 적용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무재개 엄마들이 간다' 사업은 다문화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페이스 페인팅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페이스페인팅을 배운 후에는 동네 어르신과 자녀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며 가족 간, 세대 간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아라마캔들 자격증반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8가지 아라마캔들 제작 방법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디어를 내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 열린시민청에서 '2023년 광명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표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기준과 회계처리 세부 기준, 주요 비목별 집행 요령 등 선정된 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사업 추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용민/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이 만든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위해 노력하자"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4기 위원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니터링 역량 강화 워크숍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민이 만든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4기 위원 워크숍'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 수원특례시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이재준 시장은 "기후 위기는 당연한 현실이고,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지난 5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을 들었는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위촉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4기 위원들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워크숍은 이재준 시장 강연, 주제 강연(시민참여형 SDGs이행 모니터링이란 무엇인가?), 원탁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 17개를 정한 것으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원시는 유엔에서 채택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 여건과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10개 목표로 정리했고, 2017년 11월

민·관 공동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언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맑고 맑은 도시환경)·경제(넉넉하게 더불어 사는 살림경제)·사회(오순도순한 사회공동체) 등 3대 분야, 10개 목표, 57개 세부 과제, 111개 평가지표 체계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지표와 추진과제를 마련했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한 각계각층 시민 150여 명이 회의와 토론회를 열고, 수원시 행정 부서와 소통하며 111개 평가지표와 100여 개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행정 부서에서 제공한 평가지표 통계 데이터와 이행사업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개 목표 위원회별로 평가지표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이행 사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한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시민사회·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평가지표와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고양시,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야간 축제 28일 막 올린다

고양특례시는 오늘(28일)부터 5월 14일까지 17일 동안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행주산성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한국관광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꼽힐 만큼 야경 명소로도 이름 나다. 29일(토)에는 축제 개막을 알리는 특별 공연이 열린다. 오후 7시 30분부터 총의정 정상에서 고양예술고등학교, K타이거즈가 참여해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행주, 한류로 빛나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행주산성 대접문을 시작으로 정상의 행주대접비까지 각각각색 12개 테마 포토존이 설치돼 있다.

특히 매일 밤 행주대접비에서는 북소리 반향형 미디어아트 '승전고를 울려라!'를 관람, 체험할 수 있다. 홍익대학교 MR미디어랩과 협약을 맺어 준비한 미디어아트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30분마다 운영, 총 7회)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마련돼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행주산성 달빛여행' ▲총의정·충훈정에서 열리는 '산성음악회' ▲K타이거즈 메타버스 체험부스 ▲LED 신기전·정사초롱 만들기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편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행주산성과 고양국제꽃박람회 연계한 고양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인근 33개 음식점·카페에서는 5월 31일까지 입장 티켓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식음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은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축제가 행주산성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며 "고양시 최고의 야경 명소를 마음껏 즐기시고,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행주산성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노사민정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이상일 시장 "노동자 복지 향상과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 위해 협력할 것"

용인특례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제1차 본협의회를 열어 '2023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강금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본협의회에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5명의 노사민정대표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은 생산성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용인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해나가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협의회에서 회원들은 2023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강



▲27일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강금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송재구 한국노총용인지부 사무처장

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공동선언문 채택은 노사민정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생관계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단단히 기반을 다진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미 래비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이 시장은 "용인시에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해 원상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기흥구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이 조성되면 이를 중심으로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가 일어난다"며 "이들 핵심 거점을 이어줄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우수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산시, 2023 국가대표브랜드대상서 청년벤처도시 부문 대상 영예

안산시가 지난 27일 엠베서더 서울 풀판 호텔에서 열린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년벤처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은 국가대표 브랜드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로 조사·평가해 창의적 전략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인 브랜드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민선8기 출범 후 '청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는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청년정책관을 시장 직속으

로 재편하고 ▲청년창업 지원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청년창업공간 '청년큐브'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고등졸업생 창업·창직 지원사업 추진 등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청년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중심의 젊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환경·사회·투명(ESG)경영 기반 조성 및 혁신 위한 위원회 출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합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ESG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자리재단의 친환경, 개인정보보호, 지역사회 협업 및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혁신 등 다양한 분야로 운영되며 경영혁신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제안과 논의를 통해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홍정민 지속가능발전소 ESG전략 기획본부 상무가 위원장을 맡았고, 학계, 시민단체, 노조,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재단은 이미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해 '번거롭지만 즐거운 헬렌지 전자 공모전', '환경·사

회·투명경영(ESG)전략 과제 설정 워크숍' 등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특히, 재단은 올해 대내외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 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전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아겠다"라고 말했다.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조혜영/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대한민국평판대상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 수상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평판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평판대상은 (사)한국크리에이티브진흥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평판대상 시상위원회'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발굴하여 시상해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가치 실현 ▲민생경제 안정 ▲화성시의 도시 가치 향상 ▲시민이 안

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노력 ▲포용적 복지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후 시민과 함께 좋은 행정을 펼치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화성시를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품격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 시민 모두가 화성에 살고 있음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시현/기자

“강화 DMZ 평화의 길”외신기자 프레스투어

강화군은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초청한 외신기자와 함께 강화 평화전망대 등 DMZ(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중심으로 프레스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레스투어는 오는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강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에 맞춰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DMZ 접경지역으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투어에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 7개국 10명의 외신기자들과 함께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 해 DMZ 평화의 길 개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DMZ 관광자원화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코스로 6.25참전용사기념공원을 시작으로 일반인 미개방 지역

인 의두둔대(의두분초)에서 불장군대로 이어지는 철책길을 도보로 돌아본 후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투어에서는 6.25 전쟁 당시 연백군에서 피난을 내려온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도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실랑민 어르신과 고통 원주민 어르신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가 진행되어 외신기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를 통해 DMZ 접경지역으로서 강화군과 고통도, 그리고 강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매력이 전 세계로 알려져 강화도가 평화를 향한 희망의 현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독심’ 김경희 이천시장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속도 낸다. “speed up”

이천시는 2023년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의 지난 민생현장 방문이 있었 후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소외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고 살피고 싶은 김시장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재능기부자들의 봉사로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해주는 ‘희망하우징사업’은 지난해 말 일찌감치 10세대의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3월까지 싱크대 설치, 장호 교체, 담장 보수 등 3세대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했다. 상반기 내로 나머지 7세대에 대한 집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냉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은 4세대 선정을 완료했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들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아동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진행 중이다. 중증장애인 2세대에 대한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5세대를 선정하여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및 물품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본가구 클린서비스’사업은 이천시의 미래가 될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6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진행 중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주거 내 안전시설(미끄럼방지패드, 가드



레일)을 설치하는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는 농촌지역 환경정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위생, 안전, 미관상 문제가 되는 농촌빈집 47개소를 선정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19세대, 국가사업인 농촌집고쳐주기사업 1세대도 정비중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장애인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경기도 김동연, “노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근본적으로 흔들어.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

김동연 지사, 2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133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 분야를 비롯한 민생·경제와 기후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경제, 외교, 대북 관계, 기후변화, 노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가 133주년 노동절을 축하하는 날에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의 기본권, 장시간 근무 지양, 저임금 개정, 안전한 일터의 확보,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근로시간 69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대해 “전세 사기, 뿌리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적자 등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맞는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말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고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을 낮췄고, 산업부문에 있어서 탄소배출 목표를 줄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 시기를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라며 “그렇다면 2030년까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목표는 과연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이 고사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암시, 중국과의 관계 등은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하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치철학이 중심에 없기 때문”이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은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 노동문제를 포함해서 경제문제나 대북 문제 등 다른 지방 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모범적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라며 “함께 힘을 합쳐서 내년, 후년, 그다음 해 노동절에



는 어두운 마음을 거둬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성과에 대해 축하하고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앞길을 개척하는 약속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역설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호 경기경역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대내 노동 가족 50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한국노총의 초청으로 지난해 12월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이어 이번 노동절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도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경기도’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노사정 소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세계적인 전문가가 알려주는 화훼 산업 트렌드와 원예 분야 발전의 꿀팁, 2023고양국제꽃포럼 개최

4월 28일(금)~29일(토) 2일간, 테크와 유통, 디자인,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꽃의 도시 고양특례시 국제적인 화훼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화훼산업 도시인 고양 특례시의 명성에 걸맞게 화훼 및 원예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논의하고 세계 화훼인의 상호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2023고양국제꽃포럼’이 함께 개최된다. 박람회 기간 중인 4월 28일과 29일 2일간 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분야별 총 11인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해 ‘생활 속의 꽃(Flower in the Life)’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세션발표로 진행되며, 발표에 앞서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의 기조연설로 국제적 포럼 개최의 문을 열었다. 첫째 날(4월 28일)에는 화훼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 유통이 중심 주제로 다루며, 둘째 날(4월 29일)에는 화훼 디자인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화훼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 유통을 중심 주제로 한 첫째 날(4월 28일) 고양특례시의 이동한 시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국제화훼무역기구 실비에 마미아스(Sylvie Mamias) 사무국장 △아시아트 임강후 대표 △팬 아메리칸 시드(Pan American Seed) 지엔핑 런 (Jianping Ren) 수석식물 육종가 △한국중자연구회 변상지 회장 △PHOOL 안킷 아가왈(Ankit Agarwal) 대표 △화훼 디자인 심사위원 앨리슨 브래들리(Alison Bradley)의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더불어 △화훼 작가 드미트리 투르칸(Dmitry Turcan)의 꽃꽂이 시연과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의 ‘화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약’을 기조

연설로 고양국제꽃포럼의 막을 연다. 실비에 마미아스 사무국장은 ‘세계 화훼 산업의 트렌드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화가 빨라지는 세계 화훼 산업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전망과 함께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다룬다. 세션 1에서는 ‘육종과 품종다각화’를 다루며, 두 명의 연사 발표가 진행된다. 팬 아메리칸 시드의 수석 식물 육종가 지엔핑 런은 ‘화훼 육종의 변화: 과거와 미래’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중자연구회 변상지 회장은 ‘코로나 19 이후 한국 중자사업의 변화와 뉴노멀’을 주제로 발표한다. 뒤이어, 화훼작가 드미트리 투르칸이 꽃꽂이 시연과 함께 ‘고유 꽃꽂이 스타일에 대한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해당 발표에서는 개성있는 스타일로 꽃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스마트기술과 지속가능’을 다루며, 업사이트의 임강후 대표는 ‘화훼·원예 분야의 디지털 트윈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산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버려진 꽃을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 기업 PHOOL의 대표 안킷 아가왈이 연사로 나서 ‘꽃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이어간다. 마지막 순서로, 국제적인 화훼 디자인 심사위원인 앨리슨 브래들리는 ‘Floral Fundamentals 플랫폼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플로리스트, 학생, 육종가, 학교 및 공급업체 등 화훼·원예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 교육 및 네트워킹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화훼 디자인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포럼이 진행되는 둘째 날(4월 29일)△국제플로리스트조직 대표 레이놀즈(Richard Reynolds) 작가 △국제플로리스트조직 (Florint) 토마스 래츠키(Thomas Ratschker) 심사장의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세션 3에서는 ‘디자인과 아트’를 큰 주제로 다루며, 세 명의 연사 발표가 진행된다. 국제플로리스트 조직의 사이먼 오그리첵 대표는 ‘국제 화훼·원예 산업의 차세대 도전 과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게릴라 가드닝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처드 레이놀즈 작가는 ‘화훼 산업에 끼치는 게릴라 가드닝의 문화

적인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국제플로리스트조직의 심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토마스 래츠키는 ‘독일 플로리스트의 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한다. 화훼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김운영 대표이사는 ‘포럼을 시작으로 국내외 화훼 산업의 전문가와 함께 더욱 발전된 화훼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고양국제꽃포럼’의 개최는 꽃의 도시 고양특례시가 국제적인 화훼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영기/기자



부산기업, 2030세계박람회 유치후원 기부금 127.5억 원 쾌척

- 실사의 감동 그대로 파리까지, 마지막 총력전을 위해 지역기업들이 뭉쳤다!
- 박형준 시장, 26개 부산기업 대표 등 모여 기부금 전달식 개최

부산시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30분, 시그니엘 부산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강철호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

박람회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치후원 기부금을 마련한 부산지역 기업 대표들이 함께한다.

이번 기부에 동참한 후원 기업은 ▲넥센그룹(회장 강병중)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성우하이텍(회장 이명근) ▲동원개발(회장 장복만) ▲동일(회장 김중각) ▲골든블루(회장 박용수) ▲경동건설(회장 김재진)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 ▲세운철강(회장 신정택) ▲코렌스(회장 조용국) ▲화승(회장 현승훈) ▲선보유니텍(회장 김청옥) ▲금양(회장 류광지) ▲삼정기업(회장 박정오) ▲퓨트로닉(회장 고진호) ▲은산해운항공(회장 양재생) ▲파나시아(회장 이수태) ▲동일철강(대표 장재현) ▲대일플러스그룹(회장 최상섭) ▲윈스틸(회장 송규정) ▲스타자동차(회장 유재진) ▲태광(회장 윤성덕) ▲한국선재(회장 이재훈) ▲리노공업(회장 이채운) ▲국제식품(회장 정정교)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회장 신한춘) 등 26개 사다.

지역기업들의 기부금 전달은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번 기부에는 기존에 매년 꾸준히 후원하던 기업들 외에도 새롭게 기부 릴레이에 동참한 기업들도 생겨났다.

이는 실사단 방문과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무된 동시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곧 부산의 미래라는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확실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기부금 규모 또한 지난해 24억 원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총 127억 5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은 30억 원*을, 동원그룹 장복만 회장은 5억 원을 개인 명의로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개최지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원로들을 중심으로 지역 상공계가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탬으로써 부산시는 하반기 해외집중홍보 및 교섭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

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통합된 힘을 발휘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라는 크나큰 분수령을 성공적으로 넘었고, 이제는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7개월간의 마지막 스퍼트만이 남았다”며, “이번에 이렇게 모아주신 지역기업들의 소중한 뜻에 힘입어 끝까지 전력을 다해 유치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영덕군, '사랑해요 영덕' 휴게소 '영해' 휴게소로 개명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7번 국도 대표 휴게소로 개선 의지

영덕군은 영해면 동해대로 6568에 있는 '사랑해요 영덕' 휴게소의 명칭을 오늘부터 '영해' 휴게소 변경한다.

지난 2008년에 개소한 '사랑해요 영덕' 휴게소는 그동안 소재지의 지역명과 휴게소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한다는 문제 제기가 다소 있어, 이에 영덕군은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영덕군의회와 지역주민, 관광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영해' 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김기동 농촌지원과장은 “영해면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등과 연계해

영해 휴게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7번 국도를 대표하는 일품 휴게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영해 휴게소에 19억원의 들여 식당, 로컬푸드 판매장,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과 판로를 촉진하는 사업을 펼쳤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울상반기 내로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정비, 휴게소 간판 설치, 주변 조경 정비 등을 완료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장문화기자



“대구경북신공항 세계적인 공항 만들자” 4개 단체장 군위서 회동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신공항 건설 후속 절차'속도전'... 경북도 적극 지원할 것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일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28일, 군위

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도 대구경북이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위의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신공항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구와 공동으로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충분한 규모의 공항시설 반영과 조속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공항 주변지역에는 제대로 된 항공물류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와 공항신도시를 조성해 대구경북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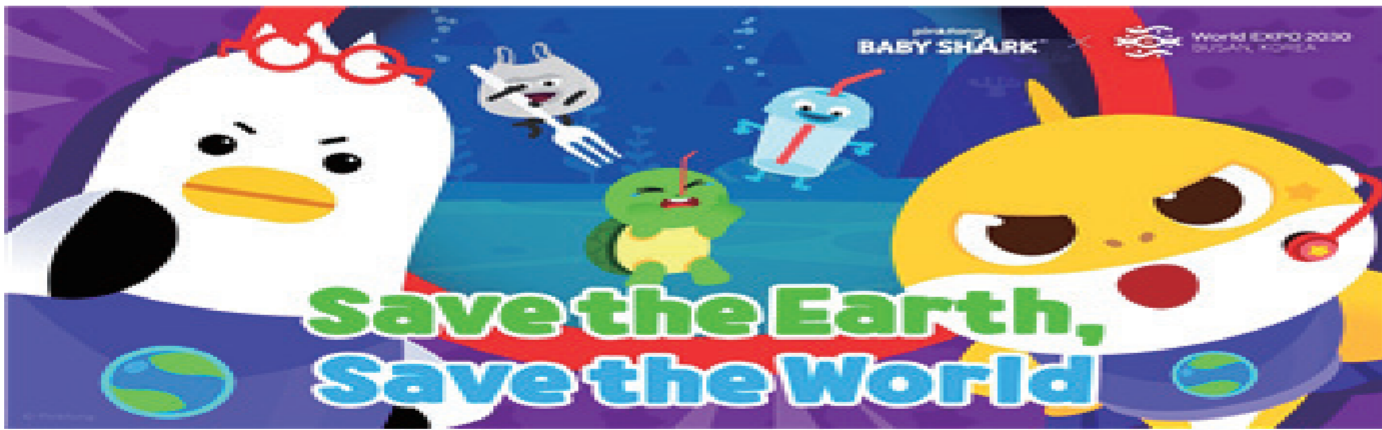
‘아기상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대사 활동 본격 시동!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제5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핑크퐁 아기상어(이하 아기상어)’가 ‘부기’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지향 가치와 개최 후보도시 ‘부산’을 알린다.

부산시와 더핑크퐁컴퍼니(주)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기상어’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지구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자(Save the Earth, Save the World)’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더핑크퐁컴퍼니(주)의 ‘아기상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지적재산권(IP)으로 전 세계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유튜브에 게시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의 조회 수는 전 세계 인구수인 80억 명을 훌쩍 뛰어넘는 127억 건을 기록 중이며, 이는 역대 유튜브 영상 조회 수 중에서도 독보적인 1위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아기상어’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대사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지난 3월 29일 홍보대사 위촉을 알리며 이 애니메이션의 예고편을 공개한 바 있는데, 예고편임에도 이례적으로 공개 2주 만에 25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구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내일 전체 내용이 공개될 이번 애니메이션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아기상어’와 부산시 소통 캐릭터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부산 갈매기 ‘부기’가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에 빠져 ‘부산’에 오지 못하는 동물 친구들을 구하는 활약상이 담겼다.

‘아기상어’와 ‘부기’는 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과 배출가스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동물 친구들이 ‘부산’에 오지 못하자, 아껴쓰기와 재활용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동물 친구들을 구하고, 세계와 지구를 구한다.

특히,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이러한 실천을 ‘부산에서 같이 시작해(Let's start together in BUSAN); ‘여기 부산에서 시작해(Start here in BUSAN)’라며 동물 친구들과 독려하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 미래세대 어린이에게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 ‘부산’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 ‘자연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등의 ‘인류공존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을 자연스럽게 알린다.

또, 실천 동참 메시지를 ‘아기상어’ 대표음원을 활용, ‘뚜루뚜루(Doo-doo-doo-doo-doo)’라는 귀여운 후렴구를 활용

하며 효과적으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더욱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인들이 시청하는 만큼 영문으로 제작됐다. 더핑크퐁컴퍼니(주) 공식 유튜브 채널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고편 공개에 맞춰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설치됐던 ‘아기상어’와 ‘부기’의 조형물은 5월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장소를 옮겨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송종진기자

경주시보건소, 감염병 예방...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 96명 질병정보 모니터원 위촉해 촘촘한 감염병 안전망 마련
- 모니터 요원들은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의심사 발견 시 보건소 통보

경주시 보건소는 촘촘한 지역사회 감염병 안전망 마련을 위해 두 팔을 벌였다.

시는 지난 달 26일, 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 보건교육장에서 96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최근 저하된 집단면역 수준과 생활방역 전환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모니터 요원은 지역 의료기관, 학교 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감염병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관리요령을 홍보하고,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 감지해 보건소와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은 먼저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위촉식 후 김유정 한국감염관리학회 학회 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역할, 감염병 질병정보와 예방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요원들이 감염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서로 소통했으며, 감염병에 대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니터 요원들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해 촘촘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최근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고 신종 감염병 대응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다시금 점검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현장 행정 눈에 돋보여

- 지난 달 27일,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건립 현장 점검
- 6월 정식 개관에 맞춰 막바지 작업, 원도심 활성화 속도



김학동 예천군수는 27일 오후 3시 30분 5월 준공을 앞둔 '예천군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날 김 군수는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이 없는지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는 생활밀착형 공공편의시설로 예천읍 서본리 49-1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74㎡, 연면적 1,960㎡, 지상 4층 규모로 6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1층-마을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2층-다함께돌봄실,

작은도서관 ▲3층-쿠킹실, 댄스실, 강의실 등 학습지도관 ▲4층-기계·전기실 등으로 특히, 예천군 1호로 설치되는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 대여실과 놀이체험실 및 프로그램 실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가 준공되면 영유아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장난감 구매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저출산 극복 대책과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경북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반부패 청렴정책·방향 공유
- 전문가 특강 및 청렴콘서트 등을 통한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도는 28일 안동에서 청렴도민감사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23년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확대 및 반부패 청렴정책과 방향 공유, 전문가 특강·청렴콘서트 등을 통한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의 청렴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추진경과 보고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 노남경 구미 시민감사관의 우수사례 발표, 이진석 영남사이버대학 교수의 청렴 국악공연, 정승호 더덕교육 대표의 도민감사관의 역할



과 청렴도 제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1996년 명예감사관

제도로 시작해 2014년 '청렴도민감사관'으로 개칭했다. 현재 제7기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174명이 위촉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의 임기동안 포항 등 23개 시군에서 청렴파수꾼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공유·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민원·건축·공사현장 등 전문적인 감사분야에 청렴도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도민감사관의 역할범위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청렴한 경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명품 청송사과 대한민국 넘어 글로벌 1등 노린다

- 청송군, 필리핀 시장개척 위한 사과수출 협약 체결
- 윤경희 청송군수, "수출확대로 글로벌 시장에도 1등사과가 되도록 최선"



청송군은 지난 달 28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대형유통업체인 디존팜(대표 캐서린 디 포사스) 및 청송사과유통센터와 3년간 수출·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쿼터 승인을 받아 사과 300톤 및 사과주스 무제한 수출이라는 큰 업적을 달성한 바 있는 청송군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새로운 수출국을 확보하게 돼, 해외시장을 더욱 확대하게 됐으며, 업무협약서에는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과 고품질 사과생산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 고품질 사과확보 및 원활한 수출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60년대에 설립된 디존팜은 필리핀 현지 과일 전문 유통업체로서 현재까지 로빈슨 그룹을 비롯해 필리핀 내 100개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과일 유통을 취급하고 있는 역사

와 신용이 있는 수입 업체이다. 군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청송사과 6톤 정도를 기 선적했고, 향후 물량을 확대해, 지속적인 수출을 할 계획이며, 기 선적된 수출사과는 마켓플레이스 및 로빈슨 슈퍼마켓 등 필리핀 현지 대형 유통판매점을 통해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청송군과 유통센터의 발 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한민국 1등 사과인 청송사과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 구매력 있는 여러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1등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년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난 달 26일부터 자존감 동기향상 프로그램 총 10회 진행해

봉화군 법전면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달 4월 17일부터 시행전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촉진금 지원을 시작했다.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사람에게 1인당 10만 원의 봉화사랑상품권을 즉시 지원하고 전입 후 1년 경과 시 2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법전면에서는 올해 전입한 주민 30여 명에게 소급해 지원하고 있다. 전입촉진금을 받게 된 K모씨는 "귀촌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법전으로 이사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민사무소를 찾았다."면서 감사의 인

사를 전했다. 김경숙 법전면장은 "전입촉진금 지원 등 인구시책 사업의 시행을 통해 관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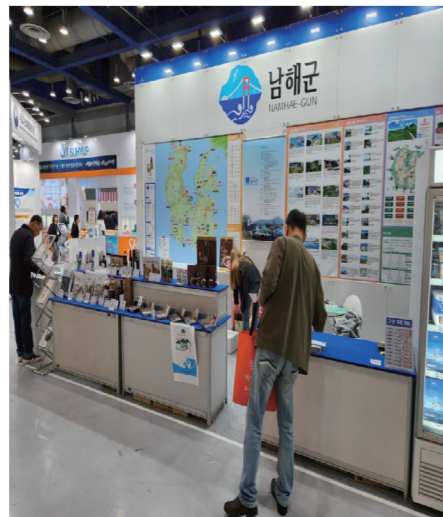
남해군, '2023년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 참가

남해 우수 수산물 판로 개척 집중

남해군은 지난 달 27일~29일,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3년 서울 국제수산물전시회'에 참가해 남해군의 우수 수산물을 집중 홍보했다. '2023년 서울국제수산물 전시회'는 한국수산업회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수산물유통협회가 후원하는 박람회로,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 증대와 국내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최된다. 남해군에서는 관내 4개 수산물 가공업체와 함께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참석, 시식회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해 남해군의 우수한 지역 특화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 4개 업체에서는 ▲(남해군수협)CAS 냉동 기법을 활용한 고등어, 전갱이, 멸치 등 ▲(늘푸른영어조합법인) 전복죽, 전복미역국, 전복내장분말, 아라보감 전복장 선물세트 등 ▲(인진수산) 남해건홍합, 남해자숙홍합살, 손질 바지락살 등 ▲(인

광식품) 각종 젓갈류 등을 선보인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해군 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영주시, 영주시티투어 버스 운행

- 매 주말 3개 정기코스과 축제 및 단체 대상 기획코스 운영
- 성인 기준 8천원...식비, 관광지 입장료, 보험료 불포함

영주시가 지난 달 28일부터, 대중교통 이용객과 지역 주요 문화·관광지를 편리하게 연결 하는 영주시티투어 버스(2대) 운영을 재개했다. 영주시티투어는 매주 토·일요일 3개 코스(선비코스, 힐링 코스 1·2)로 운영되는 정기코스과 축제 및 단체 관광객(20명 이상) 요청에 의해 운영되는 기획코스(선비코스)는 영주의 핵심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세부적인 정기코스로는 매주 토요일에 운행하는 '선비코스'는 영주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는 부석사 ▲소수서원·선비촌 ▲여유생태관찰원 ▲특산물시장(전통시장) ▲관사골 및 부용대를 관광할 수 있고, 1·3·5번째 주 일요일에 운행하는 '힐링코스 1'은 한국의 아름다운 3대 숲길로 인증 받은 죽령옛길을 걷는 코스로 무섬마을·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부석사 ▲소수서원 ▲죽령옛길 ▲특산물시장(전통시장) 투어이며, 2·4번째 주 일요일에 운행하는 '힐링코스 2'는 웰니스관광의 대표 관

광지로 선정된 산림치유를 체험하는 국립산림치유원 코스는 무섬마을·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부석사 ▲소수서원 ▲국립산림치유원 ▲특산물시장(전통시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기코스 외 기획코스 1·2를 별도 운영할 예정으로 '기획코스 1'은 지역축제 기간 중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을 연계하는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축제 행사장 등의 코스와 '기획코스 2'는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 운영 요청시 평일, 주말 없이 운행된다. 지난해와 달리 기를 값 인상 등으로 인한 시티투어 이용료 상승과 단체 관광객 편리를 위해 '기획코스 2' 신설됐고 KTX-이음 도착시간 맞춰

영주역 출발은 오전 10시 10분이다. 영주시티투어 이용요금은 성인 8000원으로 관광지 입장료, 식비, 여행자 보험 등은 포함 되지 않으며 영주시티투어 홈페이지(www.yjtour.kr)와 (주)소백산자락길(☎054-634-5445)이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많은 분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 소수서원과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산림치유원과 무섬마을 등이 있는 영주여행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영주여행은 편리하고 알뜰한 영주시티투어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천한의마을, '한의도령시험' 개최



영천한의마을의 '한의도령시험'이 4월 29일과 5월 6일 양일간 개최된다. '한의도령시험'은 국산한약재의 최대 집산지이자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인 영천에서 조선시대 과거제를 재현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달 18일부터 모집한 '한의도령시험' 체험단은 모집 인원 110명이 5일 만에 조기될 정도로 성황을 거두었다. 영천한의마을은 체험단 운영 이후 '한의도령시험'을 상설 프로그램화 하여 관내 및 인근 지역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학습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한의마을에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의도령시험' 외에도 한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북샤인머스켓새 출발 'Fresh Start' 협의회 개최

농업기술원·농업인·전문가,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 다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8일, 경북 샤인머스켓의 품질관리와 발전 방향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 샤인머스켓 Fresh Start 협의회」을 개최했다.

샤인머스켓(전국 포도 면적 14,655ha 중 6,067ha, 41%)은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포도 품종으로, 지난해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캠벌리리를 제치고, 전체 생산되는 포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점차 많은 포도송이를 착과시키고, 미숙과를 조기 출하해 지난해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샤인머스켓을 맛보게 됐다. 그 결과 소비자의 재구매율은 떨어지고, 가격은 40% 가량(2022. 10월 기준) 하락하게 됐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김천, 영천, 상

주, 경산 등 주산지군(전국 샤인머스켓 면적의 79.5%) 농업인 대표 및 지도 공무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올해 샤인머스켓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샤인머스켓 유통 전망과 재배현장 실태를 공유하고, 경북 샤인머스켓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분야별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나눴으며,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에 대한 다짐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결의하는 장이 됐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올해는 경북 샤인머스켓이 새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독려와 분위기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경북의 샤인머스켓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황리에 막내려

- 이번 체육대회는 개막식부터 성공적인 대회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
- 이번 도민체육대회 숨은 주역,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 손병복 군수, "이번대회의 성공 요인은 바로 자원봉사자들 덕택"

울진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개막식부터 완벽한 행사를 치러 성공의 조짐이 보인 것이 그대로 이어져 역대 도민체전 중, 가장 완벽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나, 이번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있게 해준 최대의 일등 공신은 다름아닌 6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11일간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이번 도민체전의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밑거름역을 톡톡히 했다.

울진군 자원봉사자들은 (사)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돼, 지난 7일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교육을 시작으로 개 폐회식 행사지원, 사전경기-본경기 운영지원, 경기장 안내, 선수단 환영, 질서유지, 선수시상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도내 23개 시군,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과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4월의 때마침 추위와 황사 등의 열악한 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뜨거운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기간 중 6일을 연속해서 참여하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직접

집에서 만든 차를 가져와 선수단들에게 권하며 긴장을 풀고 경기에 임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체육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있는 등, 향후 자원봉사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큰 덕목을 보여줬다.

박경조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이 체전의 성공 개최의 발판이 될 수 있었다"며 "울진의 위상을 높여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대회일마다 가장 일찍 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노력해주셨다"며, "지금까지도 훈훈한 미담이 이어져 올 만큼 열정을 다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대회의 최고 성공 요인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일본 사가에서 환영 리셉션 열어 '안동시 대표단' 맞이해



권기창 시장을 단장으로 한 안동시 교류도시방문 대표단이 자매도시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서 찾아 2024년 '자매도시 50주년 기념식'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사가에서 열린 안동시대표단을 환영하는 리셉션을 열어 공식 석상에서 뜻깊은 우호 교류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자리에는 사토 히로키 사가예시장을 비롯한 사가에서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안동시 대표단을 환대했다.

안동시와 사가에서는 안동 출신 재일교포가 과수 농사로 유명한 사가에서 사과 재배 기술을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1974년 2월 4일 자매

의 연을 맺었다.

그 후,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관계를 돈독히 해왔으며, 특히 2011년 2월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성금을 모아 안동시에 약 2,300만 원을 보내왔으며 안동시는 동일일대지진으로 사가에서가 피해를 당했을 때, 성금을 모아 보내는 등 환난상호(患難相助)로서 상호 우정을 다졌다.

안동시와 사가에서의 반세기 우정을 바탕으로 내년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이 안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관내 신청 제조업체 물류비 지급 완료

김주수 군수, "5월중, 관내 업체 만남의 장으로 상생 방안 모색"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물가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내 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신청 제조업체에 물류비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대표의 관내주인등록

여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물류비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근로자의 관내 주민등록률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60여 개의 업체에 약 3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올해의 물류비 지원사업은 보다 많은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매출액, 물류비, 상시고용인원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와 더불어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미등록 업체라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전년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보다 많은 관내 제조업체들이 물류비를 지원받기



정경자기자

신공항과 함께하는 구미 항공산업

구미시, 신공항 연계 미래 먹거리 '항공산업' 육성 시동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30년 신공항 개항과 맞추어 지역 발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항공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현재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사업으로 드론과 UAM에 대한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을 통한 다양한 드론 사업모델 개발 및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UAM 검증 및 활용사업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최근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소재 대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항공, 전자, IT 등 관련 분야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준비중이다. 교육과정의 개편과 신설을 통해 항공전자부품소재, 항공성비,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수요맞춤



형 인재 육성으로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향후 신공항 개항까지 구미시는 항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최대의 장점인 구미국가산단의 첨단전자산업과 연계한 항공전자부품클러스터 조성, 민공융합 항공정비 전문업체 및 인력육성과 방산 앵커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항공우주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등 신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방면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국가의 경제를 견인해온 전자부품, 무선통신장비, 전자기 측정 및 시험

분석, 정밀기기 제조업 등 항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인프라는 대구경북신공항 주변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때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절감하면서 구미시의 우수한 산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단순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공항이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미래 먹거리로서의 신공항이 되도록 구미시에서는 배후도시 역할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낙동강에서 펼쳐진 구미의 산업 역사를 이제는 하늘에서 펼쳐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동현기자

울릉군 울트라 수영협회 & 한국상공연합, 사랑나눔 전달



울트라 수영협회와 한국상공연합 사회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월 27일 울릉도 유네스코 등재 및 울릉도 공항 활주로 연장 기원 울트라 바다 수영대회 성공개회 염원으로 사랑나눔 후원물품을 울릉군 가족센터에 전달했다.

올해 6월 15일 ~ 6월 19일 울릉도 해안 연안 바다 한 바퀴 완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70명이 참가하는 바다수영대회로 울트라 수영협회 주최 / 한국중앙거리 사회협회 경북지부의 주관으로 개최되

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참가자 모집을 완료했다. 울트라 수영협회는 10년간 7회의 대회를 진행했으며,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회참가비와 협회의 부담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랑나눔 후원물품으로 사전거 4대, 건강식품 200박스, 화장지 240팩, 향균칫솔 300개 등 1,5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울릉군 가족센터로 전달됐고, 물품을 후원한 한국상공연합 사회협동조합 김영기 회장은 건강한 신

체,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봉사와 바다수영대회를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에 어려운 이웃도 생각해 주시는 김영기 회장님의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정현중.조강제/기자

청송군민체육대회 안전이 '최우선'

- 청송군, 제51회 청송군민체육대회 대비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체육활동과 군민화합한마당을 통한 군민단결과 화합 도모해



청송군은 지난 달 28일(금), 청송군 민운동장에서 소방, 경찰,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군청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5년 만에 개최되는 제51회 청송군민체육대회에 3,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약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합동 안전점검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 조치 여부, 비상대피로 및 소방·구급차 진출입동선 확보 여부, 인파사고 예방 및 가설 시설물 설치·고정 상태 확인, 교통·화재·가스·전기 등 분야별 취약요소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이성호 부군수가 현장에 나와 안전점검반원들에게 "옥내보다는 안전한 야외

이지만 사고는 언제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 시에는 시설물과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북 청송군은 5월 2일(화), 청송군민운동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제51회 청송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체육활동과 군민화합한마당 노래자랑 등을 통해 군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화합의 장인 청송군민체육대회가 오랜만에 개최되는 만큼 청송군체육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화합하며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길 기대하며 특히, 안전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반하다! 경북'기차 타고 떠나는 경북나들이 오세요!

경북 기차여행 관광객을 위한 '반하다! 경북'특별관광상품 출시

경북도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차 관광상품 '반하다! 경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1년 KTX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비 할인 이벤트를 시작으로 기차를 이용해 경북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선보이는 '반하다! 경북'은 경북의 관광상품을 "반값에 이용한다"와 경북에 반하다"라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경북의 출발, 경북 도착 기차를 이용해 경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비와 기차역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에 대해 할인 지원하는 관광 상품이다.

여행객이 경북을 여행하고 관광지 입장료·숙박료·1만원 이상 식음료 결제 영수증을 인증하면, 철도 요금의 50%와 역사매장이용상품권(3,000원)의 50%를 여행자 지정계좌로 지원받고, 숙박하면 추가 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을 이용해 열차표를 예매한 고객에게는 코레일에서 철도요금 10%의 특별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기차여행 지원금을 받으려면 28일부터 예매가 개시되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에서 경북관광 탭 클릭 후 이벤트 상품 '반하다! 경북'을 통해 열차표를 예매하면 되고, 5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

으므로 경북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예매해야 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해 경북여행의 즐거움과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며,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개발로 경북의 아름다움에 반해 다시 찾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정부의 내수 진작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23년 여행가는 달 속속박한 기차여행, 버스타고 경북관광사업,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할인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3 예천활축제, 활놀이터 예천에서 하루종일 놀자!

5월 4일부터 7일까지 한천체육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전시행사 펼쳐져

예천군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5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최대 규모 체험형 대표축제인 '2023 예천활축제'가 펼쳐진다.

'K-Culture, 활문화의 뿌리'라는 주제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활'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이색적인 체험으로 오직 예천에서만 즐길 수 있다.

축제 첫날 개막식은 양궁 국가대표인 예천군청 김제덕 선수의 퍼포먼스로 화려한 축제의 문을 열고 나태주, 코요태, 하모나이즈 등의 축하공연과 불꽃쇼로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린다.

이외 둘째 날인 5일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인형극, 마술 및 버블쇼를 진행하고 우리 소리 축제와 예천전국가유공제가 진행되며 6일은 청년층을 타겟으로 서하백일장과 청소년댄스경연대회가 이어지고 저녁에는 치맥페스티벌 및 DJ댄스파티로 축제 흥을 돋운다.

마지막 날은 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을 타겟으로 서하백일장과 청소년댄스경연대회가 이어지고 저녁에는 치맥페스티벌 및 DJ댄스파티로 축제 흥을 돋운다.

이외에도 축제기간 동안 활문화 전시체험관을 운영해 무형문화재인 김성락 장공과 김병욱 공시장의 활·화

살 제작 시연, 세계 활 전시 등 활의 역사와 전통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국궁·양궁 활쏘기체험, 활 서바이벌, 필드아처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활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키자니아 직업체험, 보트체험, 물놀이장 및 에어바운스놀이터, 활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축제장 내에 '배달의 예천' 싹터 조성으로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관내 식당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험·판매 부스를 운영해 예천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축제장을 방문하고 SNS에 인증하면 △예천군청생태원 입장료 1천 원 할인 △예천천문우주센터는 주간 체험 3,000원 할인 △예천박물관 매일 선착순 50명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제공 등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2023 예천활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며 특별한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예천만이 가진 활의 전통과 역사를 알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체험프

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는 예천군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예천활축제' 5천 원 체험권을 구매하면 전시관, 활체험, 보트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4천 원 상당의 쿠폰도 지급된다.

윤근수기자



경주 화랑마을, 5월 야외방탈출 게임 참가자 소확행 이벤트 준비

총 50명 추첨 통해 6월 5일 핸드폰으로 기프트콘(베스킨라빈스) 지급

경주 화랑마을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방탈출 미션게임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소확행 이벤트를 펼친다.

이벤트는 5월 한달 간 화랑마을 야외방탈출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이중 50명을 추첨해 6월 5일 모바일 기프트콘을 핸드폰으로 지급한다.

응모방법은 야외방탈출 체험을 완료하고 클리어 화면을 화랑전시관 안내 데스크에 제시하고 이벤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랑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시관 안내데스크(054-760-24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화랑마을은 올해 실내정원 조성하고 시민친화 공간 사업 등으로 수련, 교육,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현진 화랑마을 총장은 "화랑마을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은 5월 매월 소확행 이벤트 추진해 왔다"며 "많은 방문객들이 화랑마을을 찾아 힐링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5월의 이벤트 기간: 2023년 5월 1일 - 31일

가정의 달맞이 이벤트

5월에 방탈출한 사람은 모두 응모하라!

이벤트 안내 및 응모방법

○ 5월 1일 ~ 5월 31일 사이 야외방탈출을 이용한 모든 분을 응모가능. (추첨을 통한 50명 랜덤 선별)

▶ 응모방법: 야외방탈출 체험 후 클리어 화면을 전시관 인포메이션에 제시하고 이벤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응모완료 (모든 인원가능)

▶ 지급인원: (응모한 인원중) 50명 랜덤 선별

▶ 응모대상: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용객

▶ 지급일자: 6월 5일 기입된 핸드폰 번호로 일괄 지급

이벤트 선물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1개 (총 50명 선별)

유의사항

○ 이벤트 응모는 신청서 작성 시에만 가능

○ 작성된 개인정보는 이벤트 선물을 발송용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벤트 응모불가

○ 전시관 인포메이션 점심시간 신청서 접수불가

※ 점심시간: 12시~13시

○ 개인정보 보관은 3개월이며, 이후 재사용을 통한 폐기 예정

- 문의: 054-760-2442 (09시 ~ 18시)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주)에스지티 (주)케이오씨바이오 (주)정인테크 174억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경시는 4월 2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 업체 (주)에스지티 (주)케이오씨바이오 (주)정인테크 3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황재용 시의회 의장, 서정식, 진후진, 신성호 의원, (주)에스지티 신옥철 대표와 (주)케이오씨바이오 장동규 대표, (주)정인테크 김훈기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에스지티는 수소 시험 및 소화 안전 장비 생산 기업으로 70억원을 투자하고 5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주)케이오씨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74억원을 투자·2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 (주)정인테크는 특수 컴파운드와 플라스틱용 복합난연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30억원을 투자하고 15명을 고용할 계획



이다. 이처럼 수소, 화학, 바이오 등 주력산업이 한데 모인 만큼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제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기업하기 좋은 문경시의 기업지원 정책으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를 활성화해 신성장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문경시, 인문학교실 문경다움시즌2 - 이원규 시인 초청강연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5월 2일 저녁 7시 문화구름미장작소 5층에서 이원규 시인을 모시고 '시와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경사람 초청강연 3강을 진행한다.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저리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라는 주제가 담긴 시인 시집 '지리산'은 변하면서 오지 마시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이다.

이날 강연은 문경다움 시즌2 - 문경사람 3번째 강연자 이원규 시인은 1962년 경북 문경에서 출생해 지금은 지리산 시인으로, 사진으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향 문경에서 시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된다.

인문학 교실은 점점 1·2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주민거점시설인 문화구름미장작소에서 주민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2년부터 인문학강좌를 진행해오며, 23년에는 '문경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문경다움은 지역정체성 및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주제로 강연자의 전문적 지식을 포함하여 문경의 현안 및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시즌2는 사람살이로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커뮤니티 형성의 중심에 서고자 기획했다.

5월9일(화) 동산의원 전경홍 원장의 '건강한 문경, 문경의 역사', 5월16일(화) 사회적기업 문경미소 김경란 대표의 '더불어 크는 기업', 5월22일(월) 봉마을 김병윤 원장의 '함께 돌보는 사회', 5월30일(화) 이중필 필상담심리센터장의 '심리학과 함께하는 마음상함에서 벗어나기'란 주제로 1학기 강연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한 김세영 문경YMCA사무총장은 "사람이 희망이다. 문경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문경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문경다움이 함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 문경C REMind1975

3th

인문학 교실 문경다움시즌2 '문경사람'

이원규 시인 초청강연

시와 사진

- 일시: 2023년 5월 2일(화) 저녁 7시 -

- 장소: 문화구름미장작소 5층(점심후)

- 신청/문의: 070-7771-9905-7

- 내비: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문경시청 2층)

전남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상생 금융 모델 구축

8개 금융기관 전남신보와 중·저신용 소상공인 우대 이자 지원 협약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신보 및 NH농협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 8개 금융회사와 소상공인 특별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신보보증재단, NH농협·광주·KB국민·IBK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8개 금융회사와 소상공인 특별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와 금융권이 협업체고 고금리로 자금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화를 꾀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 모델이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고신용 소상공인에 비해 우대한다.

협약에 따라 8개 금융회사와 전남신보는 전남 소상공인 육성자금 1천억 원에 대한 금리 추가 인하, 저금리 안심전환 대출 500억 원 신규 조성 등 총 1천5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특별 우대 용자 상품을 운영한다.

8개 금융회사는 1천억 원의 금리 추가 인하 용자상품은 해당 용자에 대해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 2.0%, 중·저신용자 1.7%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전남신보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 비율을 2년간 최대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최초 1년간 0.6~0.8%p 인하하는 등 심사 조건을 우대해 보증을 지원

한다. 용자는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하고, 전남도가 2년간 연 3.0~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1~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금리 안심전환 대출 5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2023년 만기 도래하는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3.0% 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그동안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신용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고신용자보다 이자 감면율이 훨씬 높은 5~6%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아 낮은 이자로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 시 업체당 연간 250만~300만 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월 전남도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이란 전국 최초 선도적 금융협력모델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현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상생금융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영/기자

강종만 영광군수, 자매도시 상호 교류를 위해 고양시 방문

강종만 영광군수, 자매도시 상호 교류를 위해 고양시 방문

영광군은 지난 27일 자매결연도시인 고양시를 방문했다.

200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으로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이어오다 4년 만에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축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종만 군수는 개막식, 커팅식, 행사장 투어 등 공식 행사를 함께 했으며, 영광군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관광홍보부스를 찾아 시식행사도 함께 했다.

공식 행사 후 고양시는 기념품으로 분재를 전달했으며, 우리 군은 답례품으로 영광 특산품인 굴비와 모싯잎송편을 전달했다.

이종환 고양시장은 "박람회 참석

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강종만 영광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도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우호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군수 또한 "이번 박람회 참석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자매결연 도시 간 상호 교류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 지역 간 교류가 꾸준히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훼산업 박람회로 '생활 속의 꽃'을 주제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펼쳐진다.

이동순/기자



완주군, 지역 독서모임 활동 지원한다

완주군이 지역사회 독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독서모임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독서모임 운영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독서모임에 활동비를 지급해 지역의 독서모임 운영을 돕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독서모임 단체는 토론용 도서구입비, 독서 관련 프로그램 참여, 도서관 내 활동 공간 등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다.

군은 오는 5월 12일까지 독서모임 운영지원 사업(2차)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독서토론 및 독서 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5인 이상의 독서모임이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 명단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63-290-2589)로 문의하면 된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은 "독서모임 운영지원 사업은 단순히 독서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닌 주변 이웃과의 소통을 돕고 지역사회의 책 읽는 분위기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독서 동아리가 참여하여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완주군 독서모임 지원사업(2차)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만남

신청기간: 2023. 4. 26. ~ 5. 12. 18:00까지

신청대상: 완주군에서 독서모임 활동을 하는 단체(서포터즈 및 동호회)는 단체 > 개인

신청기간: 2023. 6. ~ 12.

발령일: 2023. 5. 12(금)까지 신청가능

문의전화: 063-290-2589

완주군 도서관사업소

함평군,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식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 하루 앞둔 27일 오전, 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 아이들이 모여 '나비날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나비날리기, 젓소목장, 풀잎 나비·곤충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28일 오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사진은 이상의 함평군수와 강기

정 광주시장, 양향자 국회의원, 윤영량 함평군의회 의장 등 내·외빈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이상의 함평군수, 강기정 광주시장, 양향자 국회의원, 윤영량 함평군의회 의장이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나비대축제를 관람했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제납액·세수 확충 등 높은 평가...상금 5,400만원 확보

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 분야는 지방세 징수와 제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등 32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최근 3년동안 최하위 성적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지방세수 증대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 끝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 5,4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남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맞춤형 책임징수제 운영, 제납된 재산 일제 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세정 업무에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지방세 신고, 상담, 납부 등의 원스톱 처리로 한층 더 신속하고 편



리한 세정서비스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절한 세무 행정을 펼쳤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진도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우수

상을 수상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규 세입 발굴 등 세입 확충은 물론 납세자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체코·탄자니아 '국가의 날' 행사 개최

29일 11시, 탄자니아 잔지바르 댄스, 전통의상 패션쇼, 커피체험까지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가의 날' 행사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풍성하게 채워내고 있다.

'국가의 날'은 박람회 기간 각국의 전통과 특징이 담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순천과 참가국 간 예술적 교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지난 15일 박람회 첫 국가의 날 행사로 '네덜란드 날'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조직위는 29일, 30일 '탄자니아의 날'과 '체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탄자니아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29일 오전 11시, 국가정원 깃발공연장으로 향하면 된다. 잔지바르 댄스, 전통 의상쇼와 함께 킬리만자로 커피 시음, 머리 딸기 등 탄자니아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준비되어 있다.

30일에는 체코 국가의 날을 맞아

오전 11시,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에서 '마리오네트 어린이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다.

이는 마리오네트 인형극의 고전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카로마토극단이 펼치는 공연으로, 대사 없이 음악과 유머, 인형의 캐릭터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구성된 작품이다.

2023정원박람회 개장 27일째, 관람객 22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국가의 날' 행사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더 많은 관람객들이 주말에 박람회장을 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세계 14개국, 17개 도시의 '국가의 날' 행사 참가를 확정 짓고, 참가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박람회 기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완도수목원 근로자의 날, 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서 치유하세요

31개 시설 무료 개방...숲 해설·목공예 제작 체험 등 풍성

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수목원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도록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시설은 31개 전문소원, 탐방로, 등산로 등이다. 아열대 온실은 온실 수목 생육 관리를 위한 방제작업 시행으로 개방하지 않는다.

완도수목원은 2천333ha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이다.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등 784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사계절 푸른 산림자원을 자랑해 푸른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또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해설가를 배치해 아이들 대상 '유아숲 체험', 청소년 대상 '녹색수업', 성인 대상 '난대림

숲 해설' 등 세대별 맞춤형 과정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지도에 따라 숲 가꾸기 목재 부산물 등을 재활용한 완도수목원 대표 캐릭터인 토리나리 탁상시계, 나무로봇 연필꽂이, 우드스피커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목공예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 학생, 가족, 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 10명 내외로 구성해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며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된다.

이석면 완도수목원장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연간2만톤 명품 쌀생산' ... 전국 최대규모 나주시 통합RPC 준공

4곳 농업 RPC통합 ... 총 사업비 210억원 투입, 나주 동강면에 들어서

시간당 10톤 분량의 정곡(精穀) 생산이 가능한 전국 최대규모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전라남도 나주시에 건립됐다.

나주시는 전날 동강면에 위치한 '나주시 통합 RPC' 신축 현장에서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RPC 건립은 지난 2021년 4월 남평·다시·마한·동강농협 RPC통합에 따른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이어 이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선정에 힘입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쌀 품질 향상과 수확기 능가 벼 판로 확보 등 우리 쌀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 저장시설 건립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착공한 통합RPC는 국비 71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43억원 등 보조금 125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됐다.

부지면적 총 3만6586㎡, 건축면적 3666㎡ 규모로 시간당 정곡 10톤, 연간 최대 2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전



국 최대규모 가공현대화시설과 쌀 8400톤이 수용 가능한 건조·저장시설을 갖췄다.

이에 따라 관내 벼 계약재배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쌀 생산, 통합 마케팅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으로 쌀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최명수 도의원과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장, 서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등 농업 관계자, 기관·

사회단체장, 농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연간 최대 2만톤 쌀 생산 능력을 갖춘 전국 최대규모 나주시 통합 RPC 준공은 쌀 농가는 물론 나주 농업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준공을 축하했다.

윤 시장은 "나주 쌀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명품 쌀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모두가 힘을 합쳐가자"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비료, 농자재 등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

담 완화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5억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해 쌀 농가에 추가 지원했다.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베트남 하우장성 비탄시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250여명이 입국, 본격적인 농번기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무기질 비료 인상액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90%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보성세계차엑스포! 감성 발라드 KCM 출격

5월 3일 'K-water와 함께하는 락(樂) 페스티벌'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 한국차문화공원에서 'K-water와 함께하는 락(樂)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K-락페스티벌은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공연 프로그램으로 열리며, 한국수자원공사 주임담시사가 주관한다.

공연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며, 출연 가수는 KCM, 황우림, 각오빠 등이다. 가수 KCM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았으며,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활동하면서 '흑백사진', 'smile again'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황우림은 '미스트롯2' 출신으로 트롯뿐만 아니라 댄스, 발라드,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K-락페스티벌이 펼쳐지는 3일 보성세계차엑스포가 열리는 한국차문화공원에서는 '세계 차문화 전시관', '동양 차문화 2000년 유물 전시회', '스피드 up 녹차라이프', '월드매치쇼' 등 다양한 차 관련 전시와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한편 보성군은 '천년의 보성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한다. 보성다향대축제 및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불꽃축제 등 보성의 대표 축제를 한 번에 만날 기회로 많은 관광객이 보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안/기자



제53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 "역사와 문화 빛났다"

제53회 장흥군민의 날·보림문화제가 역사와 전통을 아우른 문화축제로 4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

28일 장흥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장흥군민과 향우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군민의 날·보림문화제는 군민과 향우의 문화·체육·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꾸며졌다. 본행사의 시작을 알린 가장행렬에는 각 읍면과 기관·사회단체 18개 팀이 참여해 장흥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개성 있는 색채로 표현했다. 장흥군민의 날 상은 김성배 장흥수협조합장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 후에는 140년 전통의 장흥고싸움이 재현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장흥고싸움은 1872년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시작됐으나, 일제 강점기에 중단됐다가 1970년 '제1회 장흥 보림문화제'를 계기로 부활했다.

지금도 장흥고싸움은 광주 칠석고싸움과 함께 대표적인남도 고을형 축제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민속행사와 문화 프로그램, 체육행사가 진행됐다. 민속씨름, 단체줄넘기, 배구경기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뜨거운 응원전과 함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로 이어졌다. 실내체육관 앞에서는 각 지역의 으뜸 손맛을 가리는 향토음식 경연이 펼쳐졌다. 행사의 마지막은 장흥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군민 노래자랑이 장식했다. 읍면 대표의 노래경연과 함께 다양한 경품이 마련돼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앞선 27일 저녁에는 향우 어울림의 밤과 축하공연이 열렸다.

탐진강변에서 열린 축하공연에서는 '2023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 선포식이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의 날·보림문화제는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하나로 이어지는 화합의 장"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장흥, 발전하는 장흥,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김현태/기자

군산시, 텔런트 김성환 군산시 홍보대사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



군산시는 28일 군산 출신 유명 텔런트 김성환 씨를 군산시 홍보대사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성환 씨는 향후 2년간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성환 씨는 군산 출신으로 1970년 TBC 공채 텔런트로 방송에 입문하여 연기파 배우와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산 풍당보리축제 홍보대사'와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실천하며 군산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환 씨는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군산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앞장서고 고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고향 사랑기부금 기탁을 약속했다.

김현태/기자

제19회 영산포 홍어 축제

5. 5.[금] ~ 5. 7.[일]
영산포 홍어거리 일원

주요 프로그램
 홍어 요리교실, 홍어 맛보기, 홍어 예쁘게 썰기
 맛있는 영산포 속성 홍어경매
 나주 시민 노래자랑, 홍어 디스코파티

주최·주관 영산포홍어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나주시

“153만강원도민과 함께 모든 순간 응원” 강원FC, 극적인 시즌 첫 승.. 승리 분위기 이어간다

최용수 감독,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얻었다”

강원FC가 극적인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다.

강원FC는 지난 26일 오후 7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9라운드 홈경기에서 서울을 상대로 경기종료 직전 ‘극장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강원FC는 3-4-3 포메이션으로 서울을 상대했다. 양현준-박상혁-김대우가 공격진을 형성했고 정승용-서민우-한국영-유인수가 중원을 맡았다. 윤석영-김영민-이동희가 스리백으로 골문을 지키고 이광연이 지난 경기에 이어 골키퍼 장갑을 꼈다.

전반 24분 양현준이 측면에서 빠른 템포로 공을 몰고 와 킥백으로 패스했고, 이를 받은 박상혁이 주저하지 않고 오른발로 연결해 팀의 첫 번째 골을 만들었다. ‘02년생 입단 동기’ 양현준-박상혁이 만들어낸 합작 골이었다. 기세를 몰아 강원FC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국영의 패스를 받은 정승용이 왼쪽 측면을 파고들며 상

대 수비를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상대의 추격 골로 동점이 된 강원FC는 후반전 추가 시간, 종료 직전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갈레고의 슈팅 후 혼전 상황에서 ‘만형’ 이동희가 극적인 터닝 발리슛에 성공, 경기장에 모인 팬들을 환호하게 했다.

최용수 감독은 “감독 커리어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승리는 오래 기억에 남을 거 같다. 그동안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승리를 안겨드리지 못해 죄송했다”며 “(오늘 경기로)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경기 소감을 남겼다.

경기 종료 후, 구단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FC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강원FC의 시즌 첫 승리를 153만 강원도민과 함께 축하한다. 그동안 좋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고생했을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경



기가 잘 안 풀리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민은 서포터즈 나라사와 함께 강원FC의 모든 순간을 응원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강원FC의 첫 승을 축하한다”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다.

구단주의 응원을 전달 받은 김병지 대표이사는 “팬들의 포기하지 않는 응원과 구단주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 첫 승을 거두게 돼 기쁘다. 선수단

과 임직원, 팬들이 하나 되어 만든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늘 응원해 주시는 강원도민과 서포터스를 위해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원FC는 오는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3 10R 원정 경기를 치르며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한다.

이동원기자

태백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태백시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111명 중 1차 근로자 39명이 지난 26일 입국했으며, 관내 숙소에서 현지 적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국적(30~50세 이하 남녀)으로 작년 11월 태백시와 필리핀이 체결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6일 인천 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태백시로 이동하여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마약, 결핵검사, 건강진단), 태백우체국(이동창구)의 지원으로 통장 개설을 마쳤다.

태백시 관계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입국은 매우 뜻깊을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 계절 근로가 무사히 끝날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고 전했다. 총 3차시로 구성된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기초법 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무부 주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입국한 39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교육을 받았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계절근로자 여러분이 우리 농가의 일손 부족의 시름을 덜어주고, 필리핀과 농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위한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안하고 해소하여 근로자와 농가 모두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환영과 격려를 전했다.

유상근기자

강릉시, 풍성한 체육행사 즐기고! 산불피해 위로의 마음 전하고!

5~6월 금강대기 축구대회부터 산불 피해 경포 일원 러닝까지

강릉시가 산불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5월과 6월에 걸쳐 전국민 강릉 방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행에 즐거움을 더할 각종 체육행사가 연이어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체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내세워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집중하고 지역·전국단위의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오는 5~6월 강릉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한다.

구도(球都) 강릉의 자부심이자, 축구 유망주 발굴의 산실인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5월 첫 스타트를 끊고, 5월 7일(일)부터 14일간 강남축구공원을 비롯한 4개 구장에서 40개팀 2,000여 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5월 10일부터는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학초·중·육상대회가, 5월 13일부터 제35회 임해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와 제17회 경포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각각 진행된다.

5월 20일부터 이틀간 이번 산불 큰 상처를 입은 경포 일원이 코스에 포함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2023 TNF100 GANGWON’이 개최되며, 릴레이 런 캠페인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가수 선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5월 27일부터 축구 꿈나무들의 무대인 울곡대기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6월 23일부터 강릉시

장기 태권도대회, 6월 24일에는 안반데기그라운드 자전거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선수와 동호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도 크게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개막한 세계 믹스더블 및 시니어 컬링선수권 대회에는 각각 20개국 20개팀, 26개국 40팀이 참가해 우승을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화마에 주요 관광지가 큰 타격을 입고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 피해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닦아 놓은 역량과 기반으로 다채로운 체육행사와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강릉시에 희망을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원주의 5월, 축제로 물들다

제25회 한지문화제 / 5.5.(금)~5.14.(일) 원주한지테마파크

오는 5월 원주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먼저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원주한지테마파크 일원에서 제25회 한지문화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색으로 떠나는 종이여행’을 슬로건으로 원주 지형을 한지와 키네틱 윈드아트로 구현한 ‘종이의 숲’, 시민들이 참여하는 ‘달빛정원’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다음 달 5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백미인 ‘한지패션쇼’가 펼쳐진다. 이번 패션쇼에는 지난달 공개 모집한 시민들이 모델로 나서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한지미술놀이, 라이

브드로잉, 제기왕을 찾아라, 전통놀이 플레이그라운드 및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인 ‘방구석 한지체험’ 등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각종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이어,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판부면 서곡리에서 용수골꽃양귀비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꽃양귀비축제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원주지역 대표 꽃 축제이다.

특히, 3만 3,000㎡에 달하는 꽃밭에는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등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3,000원이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장애인 등은 무

료다.

또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계동 장미공원 일원에서는 장미축제가 개최된다.

축제장은 공연무대와 체험부스, 로컬푸드 장터와 농산물 부스, 플라마켓존, 포토존 등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게임대회를 비롯해 버스킹 공연, 장미음악회, 댄스 경연대회, 장미가요제 등이 펼쳐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김창규 제천시장, 봉양읍 냉해피해 과수원 현장 찾아



지난 4월 들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제천시 과수 농가에 냉해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김창규 제천시장이 28일 오전 봉양읍 소재 피해 과수농장에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7~9일 관내 최저기온이 영하 2.7도에 이르는 저온 현상이 발생해, 현재까지 230농가 209ha에서 냉해 피해를 입었다. 사과 176개 농가 177.9ha, 복숭아 37개 농가 26.2ha, 자두 8개 농가 2.4ha 등 규모다.

4월 개화기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과수의 씨방과 꽃이 갈변하고 수정 능력이 떨어진다. 이후 과실을

맺지 못하거나 과실을 맺더라도 낙과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농작물 피해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냉해 농작물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냉해 피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냉해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직·간접적 농가 지원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충북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생태계 강화를 위해 두손 맞잡다

김 지사, "중소벤처기업 육성하여 충북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우위 선점"

충북도는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도내 이차전지 분야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을 운용하며, 정책자금 융자, 창업·기술 지원, 수출·세계화 등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과 경영 애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선도기업 중심으로 도내 집적화되어 있는 이차전지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중진공의 다양한 정책지원 제도를 통한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책자금 우선공급 등 지원 강화 △협동화·협업화를 통한 공동설비구축 및 원부자

재 공동구매 지원 △수출·판로 및 세계화 지원 △산업 및 기업동향 정보의 공유 △지역협력 교류회 운

영 협조 등이다.

충북도 김영환 지사는 "우리도에서 구축중인 우수한 이차전지 제조·시험평가·분석·실증기반시설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중진공의 정책자금 공급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을 육성한다면, 우리도가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의 지속적인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책자금을 비롯한 창업, 수출·판로 등 중진공의 정책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진천군, 2023 진천물 동행축제 할인 행사 추진

진천군은 정부 주도 소비축진 행사인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발맞춰 진천물에서도 오는 5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25일간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중소기업부에서 소비축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형 유통업체, 정부·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전국적 소비축진 행사이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동행축제 시너지 효과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심리 자극을 통해 관내 농특산품 판매율을 제고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행사기간 진천물 회원에 한정해 전상품 할인이 가능한 8% 할인쿠폰을 회원당 3매씩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메인 행사페이지나 전상품별 상세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

받아 주문 시 적용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이번 할인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진천물 비회원 주문 또는 전화 주문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진천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구매와 홍보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행사와 더불어 타임세일 등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물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며 작년 총연간 매출은 8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1월 한 달간 1억 2천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난 2021년 진천물 돈줄 응원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월간 최고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최만식기자

음성금요회, 음성품바축제 성공적인 개최 응원

음성금요회가 4월 정기회를 통해 오는 17일에 개최하는 제24회 음성품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했다.

지난 28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조병욱 군수를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모여 정규음 음성군산림조합장의 주재로 개최된 음성금요회 정기회에서는, 어버이날 행사 및 음성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일손이음 지원사업 및 음성교육도서관 조성 등 각 기관의 현안 사업에 대한 내용 공유와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품바, 젊음을 보듬다'라는 슬로건으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음성 설성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4회 음성품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마음으로 품바축제 컨셉으로 진행됐다.

정기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품바 옷을 착용해 품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군 직원이 준비한 공연을 함께 즐기면서 다가올 품바축제를 먼저 체험할 수 있었다.

조병욱 음성금요회장은 "2023년 문화관광축제이자 8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음성품바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를 넘어 명실공히 국제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음성금요회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기관단체장 53명으로 구성된 음성금요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 사업, 농촌 봉사활동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영동 17개 마을 뭉쳤다! '영동군마을만들기협의회' 창단

17개 마을 공동발전과 농촌문제 해결 위해 맞손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문제의 해결과 체계적인 만들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영동군내 17개 마을이 뭉쳤다.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7일 힐링사업소 2층 대회의실에서 17개 마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영동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단식'을 가졌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17개 마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실정에서 각각의 마을과 마을이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자주성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번 협의회 창단을 적극 지원했다.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경험하고 추진하고 있는 마을리더들의

경험과 정보,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가 탄탄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창단식은 1부 창립총회와 2부 창립기념식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창립총회에서는 성원보고에 이어 협의회 운영의 기본틀이 될 정관제정, 협의회를 이끌어 갈 대표 및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으며, 창립선언문 낭독과 폐회선언으로 진행됐다.

창립기념식에서는 그간 사업의 경과보고 후, 회원들의 희망을 담아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한 '우리의 다짐', 내빈 축사와 기념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마을만들기협의회 창단은 마을사업 관계자들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별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협

의회 창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참석한 마을 대표들은 마을내 주민들은 물론 참여 마을들과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함께하는 군민 살기좋은 영동'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는 향후 각 마을 단위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 ▲마을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사업 ▲마을의 주민교육 등 선진지 견학 등 교육사업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영동농어촌마을 정책 발전에 앞장설 예정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마을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농촌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테슬라 기가팩토리 최적지는 아산"

박경귀 아산시장은 27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대 회 기가팩토리 투자유치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이 향해 강한 지지를 표하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산 유치 도전을 선언했다.

아산시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소재하고 있고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 미래 자동차의 핵심기술 기업 유치 및 자동차산업을 오래전부터 시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는 자동차 산업 등 첨단산업의 집적경계가 실현되도록 15개 산업단지(10,448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로 평평이 난 아산시는 평택 국제무역항이 15km 거리에 있어 30분 이내에 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3년 하반기 개통되고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등이 출몰이 개통될 예정으로 우수한 산업인력 공급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김태홍 도지사 1호 결재사항인 베이벨리 메가시티 역시 9,618억을 투입해 2035년까지 아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가

팩토리 투자 요청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 기가팩토리 최적지는 아산"이라며 "이미 아산시는 자동차 산업을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동안 쌓인 행정적 노하우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박 시장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위한 맞춤형 외국인투자단지 조성도 추진하겠다"며 기가팩토리 유치 도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산시에 테슬라 자동차가 유치될 경우, 장기적으로 현대자동차, 테슬라 자동차 집적단지가 양대 축으로 경제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호기자

충주시, 2023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충주시는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22년 실적) 시군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군종합평가는 충청북도에서 도내 11개 시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도정운영의 주요 시책지표를 통해 시군의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제도로 올해는 6대 국·도정목표, 109개 세부지표를 통해 시군의 행정역량을 진단했다.

충주시는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정량지표 평가에서 88.5%의 높은 달

성률을 보였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 발굴한 우수사례를 비교·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 총 14개 지표가 선정되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평가로 받게 된 2억 2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주민 불편 해소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천안시립미술관, 어린이 관람객 위한 '토끼와 드림캐처'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 간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꾸러미 제공

토끼와 드림캐처



천안시립미술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미술관을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연계프로그램 '토끼와 드림캐처'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획전시 '무릉묘원(武陵描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토끼'를 주제로 꿈에 대한 여러 질문이 담긴 활동지와 드림캐처 만들기 등 예술 꾸러미(아트키트)를 제공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관람객은 안내대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유롭게 체험이 가능하다.

한편, 천안시립미술관은 2023년 흑토끼 해를 맞아 오는 21일까지 '무릉묘원(武陵描源)' 전시를 열고 7인 작가의 설치·영상·회화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근기자

전남-경북교육청, 영호남 교육교류 위한 워크숍 개최

“영호남 교육지도자 협력·연대로 미래교육 비전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27일 ~ 28일 소노캄호텔 여수에서 영호남 교육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2014년 시작해 일곱 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과 경북 교육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지역 교육지도자는 1박 2일 동안 시간을 함께하며 두 지역의 교육 정보를 나누고 미래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27일)은 두 교육청 우수사례 소개와 교육 현안 정보 교류,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미래인재육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날(28일)에는 순천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및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 4월 27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2023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에 참석한 전남과 경북의 교육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을 참관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방문이 전남과 경북 교육교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다양한 교육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계기가 되어 상호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

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두 지역의 시·군 교육지원청 간 1대1 결연, 학생 및 교직원 상호방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전남과 경북이 처한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 축소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전남-경북도청 및 전남-경북도의회도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행사를 갖고 양 지역 기관이 함께 문화예술을 교류하고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혜명/기자

경북교육청, 영호남 교육 상생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23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 개최

경북교육청은 27일, 28일 양일간 여수 일원에서 전남교육청과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소통·협력·상생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경북에서 협력·상생의 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이 전남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교류 행사는 경상북도·전라남도·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경북·전남도의회·상생발전 화합대회'와 맞추어 개최했다.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은 양 교육청의 우수 교육 사례 발표, 업무협약 교육지원청 간 협의회, 유아교육진흥원 방문, 순천만국가정원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행복교육,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전남교육청은 공생의 물길 영상강 프로젝트,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운영,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전남교육청과 연대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등의 교육정책 추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학교설립 탄탄대로, 2023년 정기2차 투자심사에서 100% 심사 통과

고등학교 6개교 포함...신도시 개발지역 과밀학교 해소 선제적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가 28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 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초1 ▲고4), 조건부 6교(▲초3 ▲중1 ▲고2)로 11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32개교가 모두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에는 고등학교 6개교가 포함되어 있어 2028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과밀학교 과밀 해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과밀학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그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 기초 자치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시·군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이번 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5중의 경우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하

는 등 지역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학교 신설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한편, 심의 대상교를 방문해 통학환경 등 주변 여건을 확인해 돌발 변수를 최소화했다.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3회 연속 통과율 100%의 성과는 교육감의 과

밀학교 해소 의지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신설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사업의 자체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세종시교육청, 청소년 융합 교육 프로그램 '스팀톡톡'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융합교육체험센터는 청소년 융합 교육 프로그램인 '스팀톡톡'을 운영한다.

센터는 교육부의 '2021 융합교육 체험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종교육원 내 정보관 3층에 자기 주도적이면서 협력적으로 탐구를 실천할 수 있는 융합 교육 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학급 단위 체험 프로그램인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 주중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을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고자 주말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스팀톡톡'은 14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된 주제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에는 가상 현실(VR)로 그려는 상상, 바이오 아트, 스팀톡톡 특강 시리즈 총 3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특히, 스팀톡톡 특강 시리즈에서는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과학 크리에이터 계도의 우주과학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5월 1일부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청소년들이 즐겁게 융합 교육을 체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발견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보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2023 청소년 융합 교육 프로그램

STEAM TALK TALK

STEAM으로 상상톡톡!

프로그램명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상 현실(VR)로 그려는 상상	초·중·고·대학생	5월 1일부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바이오 아트	초·중·고·대학생	5월 1일부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스팀톡톡 특강	초·중·고·대학생	5월 1일부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처: 세종교육원 3층 정보관

복주여중,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토탈공예반 프로그램 시작

지난 달 26일부터 자존감 동기향상 프로그램 총 10회 진행해

복주여자중학교는 지난 달 26일(수)일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존감 동기향상 프로그램의 '토탈공예반'을 실시하였다.

'토탈공예반' 프로그램은 총 10회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공예작품 만들기를 체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집에 가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너무 심심

했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공예수업을 하니 더 신이 난다”라고 전했다.

복주여자중학교 심훈섭 교장은 “토탈공예반 프로그램은 총 10회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공예작품 만들기를 체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집에 가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너무 심심

윤근수/기자



봉화교육지원청, 2023년 농어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봉화교육지원청은 4월 28일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서 교육부 주관 2023년 농어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14개 초등학교 관리자 및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어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전국 23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봉화교육지원청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여 되어 이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 사업의 위탁 전문기관인 ㈜케이아츠에듀는 한 해 동안 교육과정 지속형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지속형은 한 예술분야를 1개 학급이 총 1년 동안 30~60시간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다. 봉화는 초등학교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합창, 뮤지컬, 공예 등 12개 문화예술분야에 46학급 총 808명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양춘희 교육지원과장은 봉화 지역의 학생들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2023년 농어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자회사인 ㈜케이아츠에듀와 함께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소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점검 강화!



급식시설·기구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점검

경북교육청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학교 934개교 대상으로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위생점검을 강화해 학기별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학교급식법령 준수 사항 및 지도(관장) 사항인 △시설

관리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작업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등이다.

최근 일교차가 심해져 식재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급식시설·기구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급식 위생점검 강화로 급식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각급 학교는 급식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충북경제자유통 개칭 10주년, 2030 미래비전 발표

기념행사 및 전문가 포럼으로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오송 C&V센터에서 개칭 10주년 기념행사 및 '사람중심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오전 1부 행사는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의 기념사,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 등 주요인사의 축사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의 충북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 보고 등 개칭 10주년 기념식 행사가 진행됐다.

2부 포럼에서는 맹경재 청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충북연구원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졌다. 기초강연에서는 비전에 대해 '청주공항 경제권 및 사람중심 오송의 미래비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산업육성 방향과 오송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BIT 융복합 첨단산업 도시 구축과 관련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2030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중, 국제도시 오송의 특성과 경쟁력 있는 도시 육성방안으로 6대 보건의료 국제기관 및 130여 개 바이오기업이 있는 '건강의 도시'임을 설명하고, 또한 매년 개최하는 화장품산업엑스포, 2027년 개최하는 K-뷰티아카데미 스쿨 건립으로 '아름다움의 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기업이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스타트업의 허브 도시', 2025년 청주전시관 론칭으로 인한 각종 회의와, 전시 관광이 가능한 '마이스 산업의 전진도시', KTX 분기역과 철도관련 기차시설이 모여 있고 국가철도클러스터 후보지인 '철도 중심도시', 일반 초중고는 물론

의약·제약과 관련된 충북대, 청주대 등의 캠퍼스와 2027년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된 '인재양성 요람의 도시'로서 육성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오송의 글로벌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단기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4만여 인구 유입에 대응한 정주여건 개선과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장기과제로는 청주국제공항이 충청권 발전을 선도하는 공항으로 외국의 비즈니스 공간과 국내 중부권 허브공간으로서의 경제구역 역할 증대와 2025년 교통과 산업을 기반으로 '인구 10만의 사람중심 융복합 문화복지도시', 2030년 BT-IT 중심으로 '첨단·융복합의 인구 30만 자족 도시' 조성 과제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 공간전략, 산업클러스터, 교통, 균형발전분야 전문가와 기업 및 주민 대표가 패널로 참가하여 오송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칭 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의 성장동력이 되어 오송에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정화/기자

경북도 수출기업 찾아 현장애로 청취... '수출플러스' 달성 박차

27일, 수출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30개사와 현장간담회 열어



경북도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7일 경주시청 앞천홀에서 경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수출기업 30개사, 수출지원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경기 둔화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수요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교역 환경 악화로 현장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경주상의 회원기업들은 당면한 해외 수출환경 위험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장 먼저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물류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비용 상승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함께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응해 경북도는 올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무역사절

단 22회 파견,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 8회 개최, 해외우수상품전 9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해상·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업체당 연간 2천만원), 국제특송비(EMS) 물류비(5백만원), 수출보험료(5백만원), 해외인증 취득비(8백만원), 개별국제전시회 참가비(1천5백만원), 통번역 비용(1백5십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지원기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수출실적이 없는

대구경북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1:1 밀착지원을 통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지난해 말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동시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1천197억원 규모의 맞춤형 수출바우처 사업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경북도에는 올해 8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진주시, 홍콩·싱가포르로 안정적 해외수출길 확보 나서

진주시는 지역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길 확보를 위해 24일부터 29일까지 신선농산물 수출 1위국 홍콩에서는 판촉행사를, 2위국인 싱가포르에서는 2023 FHA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여 수출 주력 상품인 진주말기와 배, 단감, 키위 등 수출 유망품목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조도수 소장과 수곡농업 수출농단 문수호 조합장, 한국배영농조합법인 김건수 대표 등 생산자 대표도 참가해 판촉전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도 함께 참가해 행사에 힘을 실었다.

진주시는 홍콩, 싱가포르를 시장포화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품목 경쟁심화 등 수출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진주시 농산물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꾸준한 시장관리와 신규 수출품목 개발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홍콩 내 36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홍(대표 임재화) 5개 매장에서 5일간 진행되고, 행사기간 동안 시식 체험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 바이어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SNS와 오프라인 LED광고 홍보를 함께 추진하여 행사의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는 60,000㎡ 규모에 60개국 2000개사가 참가하는 동남아 최대 박람회로, 진주시 신선농산물을 전시·홍보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진주드림'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시·시식행사를 기본으로, 시식이 어려운 쌀은 진주드림 오메가-3 쌀 200g 소포장으로 판촉물을 만들어 홍보함으로써 참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광용/기자

삼성전자, 中 최대 가전전시회에서 89형 마이크로 LED 공개

삼성전자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가전전시회 AWE (Appliance & Electronics World Expo) 2023에서 89형 마이크로 LED를 처음으로 중국에 선보이며 초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AWE는 세계 3대 가전·전자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중국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 AWE에는 1,20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89형 마이크로 LED 중국 시장에 첫 출시를 시작으로 한국·중국·북미·유럽 등에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에 110형 마이크로 LED를 출시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89형 마이크로 LED를 시작으로 76·101·114형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초고화질·초대형 제품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한다. 모듈 형태도 설치가 가능해 모양·비율·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사용자가 맞춤형 화면을 완성할 수 있다.

기존 TV와 달리 베젤이 없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벽과 스크린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몰입

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AWE 2023 전시회에서 마이크로 LED 이외에도 NEO QLED·OLED·라이프스타일 TV, 비스포크 생활가전 제품들과 더불어 갤럭시S23 시리즈 등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철기 부사장은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3에서 마이크로 LED·NEO QLED·OLED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삼성 TV 기술력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세계 최초로 중국에 출시될 89형 마이크로 LED를 앞세워 중국 내 초프리미엄 TV시장 장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남도,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맞손'

충남도가 도내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국내 건설사들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건설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상생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홍 지사와 21개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 60개 지역 건설기업 대표, 대한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인증서 수여식,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량 있는 도내 지역 건설기업과 국내 대형 종합건설사 간 소통·협력을 모색하는 만남의 장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 건설사업의 참여 역량을 갖춘 '충남 신뢰 건설기업' 60개를 발굴, 인증서를 수여했다.

충남 신뢰 건설기업 인증은 지역 건설기업과 대형 건설기업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지사 인증 우수 지역기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공고와 서류평가, 대표면담 등을 거쳐 최종 6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뢰 기업의 인증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간이다.

신뢰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허가 시 하도급 참여 조건 부여, 착공 단계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 제공, 대형 건설사와 신뢰 기업 간 업무 협약 체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도는 21개 종합건설사, 60개 충남 신뢰 건설기업과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신뢰와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도는 종합건설사와 신뢰 건설기업이 도내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종합건설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건설사는 도내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충남 신뢰 건설기업이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충남 신뢰 건설기업은 종합건설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품질·안전 확보 및 책임 준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또 종합건설사와 충남 신뢰 건설기업 간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신뢰'는 기업의 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현재 도내 민간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은 업체 사이에 신뢰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라며 "오늘 우리 도가 수여하는 이 인증서가 대기업과 지역업체 간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북미지역에 자동차 기어류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호산업(경주 소재)의 수출담당 팀장은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철강, 반도체 등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효과와 함께 방대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 전략산업이며, 특히 자동차부품은 경주의 수출 최대품목이므로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고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경주를 포함한 경북도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터키자동차부품전시회, 국내 모빌리티산업전시회, 북미 미래차 무역사절단 참가 등 해외시장 직접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국가 전체적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경주시는 수출 회복 여력이 높은 자동차부품 산업 등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기술력 및 품질개선과 함께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2배~4배로 남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남원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배~4배로 돌려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며,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은 만15세 이상~만39세이하 청년으로 월10만원이상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중소도시 2억원이하여야 한다.

차상위계층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는 만19세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월50만원초과~220만원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위와 동일하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사업도 5월1일부터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기금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2023.5.1(화) ~ 5.26(금)

지원내용:

- 월 10만원 저축 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세액 100%연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19세 이상 ~ 연 34세 이하)
 - 연 10만원 저축 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세액 30%연기 지원

지원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방문 신청 (5월 1일부터 24일까지)

문의처: 주민복지과 (문의: 1222-3900) (주말·휴일: 129)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우리 함께 날아오르자...영등포구, 비장애 형제·자매 위한 '비행기'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형제·자매의 행복한 기다림'...초등학생 12명 대상

영등포구가 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비행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행기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행복한 기다림'의 약자로, 과학·사회·역사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년별, 그룹별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비장애 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행기 프로그램은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총 6회가 진행된다. 전문강사 1명당 학생 3명을 소그룹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비장애 형제·자매들 간 교류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스트

레스를 잠시나마 잊고 정서적 박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장애인이나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기관에서 26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비행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서울시,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이끌 관광 스타트업 10개사 공개

'2023 서울 관광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 공개오디션' 개최...관광스타트업 총 10곳 선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4월 27일 개최한 '2023 서울 관광스타트업 공개오디션'에서 총 1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공개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6년부터 '서울 관광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총 72개의 관광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서울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 이후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여행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울방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관광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지난 3월 개최된 공모전에 지원한 총 134개의 기업 가운데 10개사만이 공개오디션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13: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미식, 의료, 한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선발되어 관광시장의 회복과 다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진행된 공개오디션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온라인 청중의 점수를 합산한 심사 순위에 따라 총 4억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번 공개오디션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온라인 청중심사단 490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관광객 편의 개선 정도, 서울관광 기여도, 사업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발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글로벌 K-POP 팬덤 플랫폼 '스타플레이'를 운영하는 글림미디어그룹이 대상을 수상했다. '스타플레이'는 전 세계 K-POP 팬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145개국 796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윤호기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림미디어그룹이 보유한 강력한 팬덤을 활용하여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히치메드는 현지 의료인들로 구성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현직 약사인 박소현 공동대표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여행을 위한 '메디이치'를 소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푼타컴퍼니는 서울의 숨은 맛을 찾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하이퍼컬러 미식 플랫폼 '식후경'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식당에서 시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맛집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외에도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서울시와의 협업 기회, 서울관광플라자 이용 기회,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서초구,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열어

서울 서초구가 28일 오전 08시 30분부터 이수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8일 서초구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의 '교통안전문화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초등학생과 주민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이수초등학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현대모비스, 방배경찰서의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활동에는 통학 시간에 통행 차량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횡단 보도 정지선 앞 우선멈춤, 주정차 금

지 등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했다. 또, 이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과 '교통안전' 로고가 새겨진 우산을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또한 구는 21일에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염곡사거리에서 안전펜스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인 '포인트존'을 설치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시 우선 멈춤 규정을 알리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안전운전이 생활문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은평구, 50년 전통 '대림골목시장' 새단장한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등 시설개선 추진

서울 은평구는 50년 전통의 지역 대표 시장인 '대림골목시장'을 새단장한다고 밝혔다.

'대림골목시장'은 1970년대부터 소규모 가게들이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지난 2011년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은평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구는 앞으로도 대림골목시장 지역민의 사랑받는 곳으로 남도록 시장 내 낡은 시설과 경관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전통시장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현대식 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지붕 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총사업비 25억 원 투입하며, 6개월의 설계 과정을 거친 후 지난 10일 공사를 시작했다. 아치 형태 시설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더불어



점포별 간판 개선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오래되고 낡은 점포 판매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판매대를 편리하고 위생적인 구조로 바꾸고, 상품과 점포 특성을 살려 제작해 주목도를 높인다.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판매대 총 65개를 개선한다. 예산은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공모에 선정돼 확보했다.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해 상인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고객 응대를 위한 서비스 인식 교육, 고객선(질서유지선) 준수 교육, 소방 분야 안전교육 등을 주제로 강

의를 진행하고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25일 첫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연중 5~6회 이상 추진할 예정이다.

하수남 대림골목시장 상인회장은 "대림골목시장이 멋지게 재탄생하기 위해 상인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겠다"며 "개선 사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쾌적한 현대화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갖춘 전통시장으로 새단장해 더욱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지역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토요일은 즐거워! 서대문구 어린이 뉴스포스트 클럽 운영

서대문구가 어린이 비만 예방과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뉴스포스트 클럽'을 운영한다.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5/27 제외) 홍제역 인근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 1층 다목적실에서 무료로 열린다.

참여 어린이들은 총 8회에 걸쳐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패드민턴 △어린이 골프놀이 △인디야카 △아치볼 △LED발목줄넘기 △스파이크볼 등을 실내에서 안전하게 즐긴다. 또한 놀이형 응용 게임에도 참여한다.

클럽 A반은 오전 10시 10분, B반은 오전 11시 10분부터 50분씩 운영되며 카카오톡 채널 '서대문구보건소 건강운동실' 1:1대화창을 통해 각반 16명씩 모두 32명이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수업을 참관하거나 별도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다. 구는 법정공휴일로 휴강하는 주간에는 이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건강 간식 먹기 챌린지'를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흥미로운 뉴스포스트 클럽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신체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행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함께해요 행복출산, 같이해요 든든육아 ”

우리를 위한 선택! 선택을 돕는 지원! 경상북도가 행복을 키워줍니다

- 결혼·청년**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1인 1,060만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춘남녀 만남지원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 임신·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소득 불문)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다자녀가구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 돌봄·교육**
- 어린이집 전 계층(0~5세) 무상보육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초등학교 마을돌봄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 경감(90~100%)



경상북도

“에어비앤비 이용했더니 불법 숙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

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

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시내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쇠퇴를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 5월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구·경찰청·화물협회 합동...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

광주광역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자동차 및 의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심야시간(밤 12~새벽 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일반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용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참여하며, 단속 때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원),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위험물제조·취급 공장 소방 안전패트를 단속결과 28건 적발

북부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 대한 특사경 합동 소방안전패트를 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를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방 안전 법령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어지는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안전관리 집중강화를 위해 66곳을 불시에 단속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로, 남양주시 A업체와 양주시 B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취급·저장해 적발, 입건 조치됐다. 더욱이 소방시설 관리까지 소홀한 남양주시 A 업체는 과태료 처분이 추가됐다.

또한 구리시의 C 업체는 계단상에 물건을 쌓아둬 피난 장애 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그 이



외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소재의 15개 업체도 적발해 경중에 따라 과태료, 행정명령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험물을 제조·취급해 생수, 생수제조, 가공하는 공장은 일반 공장시설에 비해 화재위험도가 높아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올들어 경기북부 지역 내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에서는 1월 포천시 사료공장, 2월 파주시 화장

품 공장, 3월 양주시 페인트 공장 등에서 불이나 5명의 부상자와 수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화재 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고덕근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및 수시로 단속과 홍보, 계도를 지속 추진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부천시, 위생 불량 배달전문음식점 특별점검 나서

배달음식점 20개소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 점검...적발 업소 행정처분

부천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행정처분 이력업소 등 배달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배달전문음식점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적발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진행됐다.

시는 ▲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 무신고·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 ▲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 냉장·냉동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2건 ▲ 위생모 미착용 2건 ▲ 적합한 폐기를 용기 미설치 3건 등 7건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박기열 부천시 식품위생과장은 "손님이 실제로 방문하지 않는 배달전문음식점 특성상 위생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경남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금천구, CCTV로 무단투기 끝까지 단속한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 100곳에 CCTV 설치, 단속반과 연계해 투기자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주택가나 원룸 밀집 지역의 골목에는 검은 봉지 무단투기 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금천구는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간 무단투기 감시용 CCTV 100대를 설치해 실시간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지난해 7월에 설치해 9개월 운영한 결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 100곳 중 22곳에는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효과를 냈다.

설치한 CCTV는 900만 화소 고화질로 사각지대 없이 360도 전 방향 관제가 가능하고 녹화도 할 수 있다. 무단투기자를 발견한 경우, 전 방향 감시로 투기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단속반과 연계해 신속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

금천구는 청소행정과 안에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해 오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단투기자를 감시하고 있다.

무단투기자가 접근하면 카메라에 설치된 센서가 감지해 관제센터 모니터에 빨간 경고 표시가 뜬다. 모

니터링 직원이 무단투기자에게 바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방송에도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단속반에 영상을 전달해 단속을 실시한다.

CCTV는 설치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다른 투기지역으로 이동 설치할 수 있다. 금천구는 올해 하반기에 무단투기 문제가 해소된 지역 22곳의 CCTV를 이동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 설치의 신규 설치 비용의 30%로 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에 구축한 실시간 무단투기 CCTV 감시시스템이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경남 고성군,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

우리 집 강아지 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성군이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영오면 내 사육 중인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단속한다.

동물등록 대상 지역은 동물등록 대행 병원이 있는 읍·면으로, 고성군의 경우 고성읍, 영오면, 회화면이다.

군은 집중단속 2주 전 단속계획을 해당 읍·면에 공지해 동물등록을 유

도했으며, 4월 26일까지 71마리의 반려견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단속반은 견주 입회하에 내·외장

칩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등록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유실·유기 동물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영양양수발전소 건립유치」는 영양군의 살길

영양군,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지자체 우선한 발빠른 선제적 행보 보여

지난 27일 11시, 양수발전소 유치관련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해

오도창 군수, “반드시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살기좋은 영양을 만들겠다”고 밝혀

인구소멸위기 1호, 재정자립도 열악, 4차선 도로 하나없는 '육지속의 오지'인 영양군이 지금 '양수발전소 유치'란 거대한 꿈을 안고 오도창 군수를 필두로 16000여명 군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역량을 총집결해, 양수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양도(英陽刀)를 힘차게 빼들었다.

지금 이곳 영양군의 분위기는 온통 양수발전 분위기이다. 마을 경로당, 노인회관 등 어느곳 하나 2~3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으레히 양수발전 얘기로 가득 차고 넘치고 있어 양수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군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어, 이번엔 뭔가 이뤄질 것이란 강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어 참으로 고무적이다.

잘알다시피, 오도창 영양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2020년대부터 꿈꿔왔고,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준비해와, 경북도의 타지자체보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선제적인 활동을 하는 등 그의 노력은 무한 감동이다.

서울-세종시-도청을 안방마냥 쉬임없이 오가며 양수발전소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으며, 또한,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도 영양군의 양수발전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어 다각도에 걸친 노력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제 얼마후 정무기관의 최종 유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영양군 미래가 될 양수발전소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양수발전! 양수발전이란? 전력소비가 적은 밤에 높은 곳에 있는 저수지로 물을 퍼 올려 저장 후, 전력소비가 많은 낮 시간에 이 물을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같다. 보통 수력 발전소는 사용한 물을 흘러 보내나, 양수 발전소는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아래쪽 저수지를 만들어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남는 밤에 다시 퍼 올려 이용한다.

이 발전소는 수력발전소의 한 방식으로 만수시나 심야의 경(輕)부하시의 잉여전력을 이용, 펌프를 운전, 발전소 하부에 설치된 저수지의 물을 상부의 저수지로 퍼올려 타 계통사교시나 낮의 최대부하시 발전하는 방식의 발전소이다.

이에 취재진은 17년 전, 인접 청송군 파천면에 설치된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대비한 영양 양수발전소에 대해 들여다 봤다.

먼저, 양수발전소 건설의 최대 포인트는 해당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지역 주민들이 양수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호응도가 최우선 덕목인데, 청송군은 일찍부터 이 두 가지 핵심요소를 갖춘 상황에서 건설된 우리나라에서 6번째의 들어선 양수발전소이다.

청송양수발전소는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에 한국서부발전(주)가 2000년 9월 착수, 6년 만인 2006년 9월 1호기, 12월 2호기를 각각 준공했다. 주요설비 현황은 발전기 2대로 용량은 600MW(300MW x 2기)의 양수식 지하발전소 형식이다.

댐형식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 상부댐(높이 90m, 길이 400m)의 총저수량은 712만톤, 하부댐(높이 62m, 길이 300m)의 총저수량은 1,020만톤으로 청송 노래산의 상부저수지(노래호)에서 하부저수지(청송호)로 물을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소 등 대용량발전소 불시 정지에 대비한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타 발전방식에 비해 기동, 정지 시간이 짧고 출력조절이 용이해 주파수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며 전력소요가 적은 심야에 대용량 발전소의 여유 전력을 이용 하므로 발전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당시, 청송군에 이 발전소 유치가 결정된 후, 청송군은 건설기간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누려, 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발전소로 인해 청송군에 매년 들어오고 있는 혜택은 엄청나다.

국고보조금 2억 4천여만원, 지방세(군세·도세)6억 4천여만원, 발전소와 관련된 청송읍-안덕면·파천면 지원 발전기금 2억 3천여만원, 기타 장학금, 각종 군-읍-면의 행사시 특별지원금 1억여원 등이 지원돼, 부자청송군의 효자역을 톡톡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약46년간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이에 영양군을 소멸위기로 부터 벗어나 '살기좋은 영양! 변화하는 영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던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야심찬 각오로 이곳 영양군에 '양수발전소 유치'란 거대한 꿈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잘알다시피, 영양군은 인구절벽으로 지금 소멸 위기로 이를 살릴 단 하나의 기회가 바로 양수발전소

를 유치하는 길이다. 이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와 조직적 대응**, 그리고 **최선의 유망 노력의 三位一體**가 이뤄져야만 '영양양수발전소 건립 유치'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영양군은 절대절명의 각오로 군수부터 군민 한사람한사람이 힘을 모아 반드시 이곳 영양군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곳 **영양군에 양수발전소 유치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이다.

군은 지난 50년간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임계점에 도달했다.

1973년도 한때 70,791명이던 영양군 인구는 2023년 3월기준 15,912명으로 1만 6천명마저 붕괴

돼, 전국인구 최하위 2번째이며, 고령화율은 40.4%이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지역방문 인구를 확보해 실질적 인구 증가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높여 기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확보가 그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대규모 사업 등 확실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군은 지금 인구감소·고령화 등 지역경제가 붕괴 되고 있어,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확실한 전환점 확보가 필요 하며, 각종 군민건강



검진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은 정책효과 불확실 및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한계를 극복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해, 10년간의 건설로 60년을 가동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진 양수발전소는 지역 지평의 유일한 대안이다. 또, 이를 매개체로 관광지 개발, 수자원 활용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지역사회역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기에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는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하다. 이러한 '영양양수발전소 사업'은 기간이 2023년부터 2036년까지 14년(준비 5년, 건설 9년)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일월면 용화1리 일원에 설비용량 1,000 MW로 총사업비 2조원이 투자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주관으로 상부저수지, 하부저수지, 발전설비 등을 추진한다. 영양군이 대변혁을 가져올 양수발전사업에 대한 준비 상황은 다음

년 25일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민간조사팀 구성, 수몰지역주민 최우선 면담·협의를 위해 취지를 설명하고 타 지자체 사례 대비 특별지원금을 적극 활용, 최고의 보상지급을 약속했고, 영양 양수발전소 이주대책 협의회를 구성, 이주위탁 결정, 기타협의 등을 추진하고, 설득전담 간부 공무원을 배치 조속한 이행 합의 도출을 위해 국실과장급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소통 체계를 구축,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을 통해 조속한 의견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여 양수발전이 유치되면, 이후 추진계획은 공식기구인 양수발전소 건립 지원단을 구성해, 부지보상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한수원 정착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 물품 제작**, 방문설명 등 계획을 준비 및 시행완료 됐다.그리고, 홍보물품 제작은 전군민 가슴에 뱃지 부착, 읍·면 도로변 등 현수막 부착, 양수발전소 소개자료 전단지 제작 배포와 팸플릿 3만부 제작·배포, 지난 17일, 반상회보에 양수 발전소 유치 동참 호소문을 넣어 배포했으며, 방문 설명으로 전 공무원이 사체가 돼, 군민모임 직접 방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을 통한 주민 이해 증진 도모 등, 대군민 적극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와같은 노력의 결실로 영양양수발전이 들어서게 되면 **영양군에 어떠한 변화가 올까?**를 살펴 봤다.

오도창 영양군수가 추진하는 영양의 양수발전은 용량이 1000MW로서 청송양수 발전의 약 1.7배나 더 높은 용량의 발전소이기에 앞에 언급된 청송군과 비교해 볼 때, 연간 국고 보조금 4억 여원, 지방세(군세, 도세) 14억 여원, 기타 발전기금 2억 4천 여원장학금 등 기타 지원금 2억 여원 고려 시, 연간 24억 여원이 영양군에 들어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발전소가 들어오고 난 이후 매년 지원되는 것이지만, 이보다 발전소 유치가 확정 되면 이곳 영양군은 **특별지원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이 들어오며, **2조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자되기에 영양의 지역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 올것이 확실시 돼, 각종 시너지효과는 더더욱 크게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곳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 전력량이 풍부해짐은 물론, 이곳 발전소에 70%이상의 영양의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이로인한 인구증가로 인해 소멸위기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 6천명 선이 붕괴돼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지역발전과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잘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9월경에 있을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가 이뤄져, 영양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증가와 지난 4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졌던 영양군 경제 활성화에 눈부신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에 살기 좋은 영양, 변화 발전하는 영양군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역동감 넘치는 영양군의 미래 비전이 활짝 눈앞에 전개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영양군에 내려지기를 소망해 본다.
윤군수/기자

과 같다. ▲ 지난 11일, 유치 실무팀을 포함한 **영양양수발전소 유치**



추진단을 꾸려 유치 및 홍보활동 등, 행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고, ▲지



고, 5월중 '대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며, 기타 지상파 TV인터뷰, 등 기획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홍보와 거리홍보를 통한 전방위적 참여 인



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난 27일 11시, 양수발전소 유치관련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를 널리 홍보해달라



경남, 신록의 계절 5월 곳곳서 다양한 축제 열려

불거리, 떡거리, 즐길 거리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혹



경남도내 곳곳에서 정성들어 준비한 축제가 봄 나들이객을 맞이할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을 맞아 펼쳐지는 17개 지역축제는 경남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준비에 여념이 없다.

먼저, 4월 29일부터 열리는 산청, 합천 황매산 철쭉제를 시작으로 화사한 철쭉의 선홍빛 물결을 감상하고 나면,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와 함께 열리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서 녹차의 맛과 향을 느끼며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김해시에서는 '철든 가야, 빛든 김해'라는 주제로 2023 가야문화축제를 개최하며, 폐막기념 '더 트롯쇼' 공연에는 송가인, 진성, 박군 등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가 축제의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밀양방문의 해와 함께하는 밀양아리랑대축제는 195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대표적인 아리랑축제며 밀양강 오디세이, 역사

맛이 거리퍼레이드, 아리랑 주제관 및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을 유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들이 경남 곳곳에서 개최 준비 중이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과 지역축제를 연계하여 숙박 및 유원시설 할인, 소비쿠폰 발행 등 다방면으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남도에는 도내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안전관리도 철저히추진하여 안전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김명숙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장은 "다양한 특색을 가진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남의 자랑스러운 자연경관, 전통과 문화, 농특산물을 자랑한다"며,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유혹하고 있는 축제의 고장 경남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원기자

문경도자기와 향토 음식 콜라보 한상차림전

2023년 문경차사발 축제 기획전시



문경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는 차사발축제 기간 중인 4월 29일 문경새재 오문세트장 내 백제궁에서 문경도자기협동조합과 협업한 '문경도자기와 향토음식 한상차림전'을 기획전시 했다.

문경의 대표 향토 음식과 생활도자기와 만남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문경의 숨은 맛집 10개소와 문경의 도예명장 10인을 1대1 개별맞춤으로 한상을 차려냄으로써 생활도자기로서의 가치와 문경만의 색깔으로 만든 향토 음식을 담아내는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했다.

장재봉 문경시외식업 지방장은 "많은 관광객이 오는 차사발 축제장에서 문경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향토 음식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번 기획전시가 문경도자기가 각 가정과 음식점주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식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사장은 "기존의 한상차림전에서 한층더 발전하여 문경의 대표 향토 음식을 직접 저희 생활도자기에 전시하여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문경의 생활도자기와 향토 음식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문경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닫혀 있던 일상을 회복하고 차사발 가득 여유까지 챙겨가시길 바라며 문경의 전통도자기의 멋은 그대로 살리면서 사용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생활도자기와 문경 향토 음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달콤한서울”, 서울의 미식을 알리는 ‘스윗서울’ 팝업 열려

‘서울의 맛’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카드와 협력...

스탬프투어, 빙고게임 등

참여형 행사 마련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K-콘텐츠에 등장한 한국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페스타2023(SEOUL FESTA 2023)’과 연계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스윗서울(Sweet Seoul)’ 팝업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를 본격적인 관광 회복의 원년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관광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페스타 2023(SEOUL FESTA 2023)’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간 광화문광장 및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 전역에서 개최한다.

최근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서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디저트를 소개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테이스트 오브 서울 100선’ 카페&디저트 부문에 선정된 5곳을 포함 총 9곳의 업장이 참여해 서울의 다채로운 디저트를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12시부터 20시까지 광화문광장 내 마련된 부스 6곳에서 운영(5월 7일은 12시~18시)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다채로운 미식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국내외의 미식 전문가가 추천하는 레스토랑&바 리스트인 ‘테이스트 오브 서울(Taste of Seoul)’ 100선을 발표한 바 있다.

작년에 선정된 강정이 넘치는 집(한과미의식)·제이엘 디저트바·매즈엠·합·소나 등 5곳의 업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부스 2곳을 운영하며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탠다. 지난 3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K-푸드 홍보를 위해 막걸리자조금(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와 대한탁양주제조중앙회)과 한식진흥원(한국전통음식연구소)이 함께 참여해 전통 한과, 떡, 막걸리 등 시음·판매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막걸리 빚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스윗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의 맛’을 느끼고

‘서울의 맛’도 느낄 수 있도록 서울미식존 포토존 운영·스탬프투어 등 우리카드와 함께 이벤트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을 펼친다. 이번 참가자는 행사장 내에 있는 부스를 방문할 때마다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티커 타투 스타일링도 받을 수 있으며, 타임별 진행되는 빙고게임에 참여한 관람객 역시 디지털 및 핸드위시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스윗서울(한과미의식·제이엘디저트바·매즈엠·한국전통음식연구소·막걸리자조금 등) 홍보 부스와 서울의 여형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광화문 놀이마당에 조성한 서울홍보존(서울관광홍보존·서울드라마존·서울패션존·서울뷰티존) 등 스윗서울존 1개와 서울홍보존 홍보 부스 4개 총 5개 이상 참여자에게는 경품을 제공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페스타2023의 메인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스윗서울’ 팝업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서울 디지털과 서울미식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컴즈 스페이 4.30(일)~5.6(월) 12:00~20:00 8일간 즐기는 광화문 광장 5.7(화) 12:00~18:00 서울디저트의 향연

충북도, 함께하면 대박나는'2023 동행축제'시작

충북도, 함께하면 대박나는'2023 동행축제'시작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형 유통업체부터 중소기업, 전통시장, 정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형 할인행사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자 진행되는 '5월 봄빛 동행축제(2023 동행축제)'에 맞춰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5월 봄빛 동행축제'는 중소기업부터 주관하고 정부 부처, 17개 시·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28일간 개최된다.

충북도에서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5월 봄빛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KTX 오송역(1층)에서 충북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이 진행된다. 뷰티제품, 식품, 생활용품 등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진천 농다리 축제장 내에서 지역 우수 제품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제품을 판매하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특별판매전이 진행되어 지역 축제도 즐기며 지역 우수 생산품도 만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도청 서관 1층에서 운영 중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서도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입점된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가정의 달 특판행사가 진행된다.

지역 온라인몰(청풍명월장터, 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청북도 진천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바이오 제천몰, 음성장터, 진천(물)도 최대 60% 할인과 쿠폰이 지급되고, 충북도 공공배달앱 '먹개비'와 제천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도 2천원 쿠폰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청주 직지시장·사창시장·육거리시장, 제천 내토시장, 영동통시장, 괴산전통시장, 음성전통시장, 증평장돌마켓 등 8개 전통시장에서는 복권이벤트, 문화공연, 어린이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보기·만들기 체험과 동요콘서트, 피에로 공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구성했다.

가정의 달 지역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역화폐들도 인센티브 확대



와 구매 한도 증액을 진행한다.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각 7%, 8%, 10%로 확대하고, 옥천군 또한 5월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5%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두환 도 경제통상국장은 “은·오·프라이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행축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가정의 달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도내 우수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고, 가족들과 지역축제장, 전통시장 등에도 많이 방문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용인문화재단,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내한 '객석을 누비는 고양이들' 용인에서 만나보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다가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 5회에 걸쳐 용인포은아트홀에서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내한 공연을 선보인다.

뮤지컬 '캣츠'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T.S.엘리엇의 시에 곡을 붙여 무대화한 공연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에미타' 등을 작곡한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뮤지컬 '레미제라블', '모시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등을 제작한 '카메론 매킨토시'가 함께 작업해 1981년 초연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번 내한을 위해 전 세계 프로덕션에서 활약하고 있는 월드 클래스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팬텀 역으로 2,700회 이상 출연한 기록을 가진 브래드 리틀과 세계적인 뮤지컬 디바 조아나 암필, 웨스트엔드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신인 잭 맨슨 등 최정상의 배우들이 관객의 마음을 흠뻑 예열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젤리클릭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젤리클릭은 고양이를 낚는 배우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좌석으로, 공연과 인터미션 중에 관객의 마음을 자유롭게 누비는 고양이들과 플레이타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본 공연은 8세 이상 관람가로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용인문화재단 CS센터로 연락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삼척시 근덕청소년문화의집, 'e스포츠대회 근덕에서 롤(lol)자' 프로그램 운영

삼척시 근덕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내 14세~19세 청소년 40명을 모집하여 'e스포츠대회 근덕에서 롤(lol)자'를 운영한다. 대회는 5월 20일 근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리는 e스포츠대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가

대회 종목으로 선정됐다. 5인 1조로 팀을 구성하면 대회 참가가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번 e스포츠대회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근덕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램은 선착순 마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덕청소년문화의집(☎033-571-2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및 긍정하고 폭력 없는 e스포츠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